

황우석 사태 前後 일간지의
건강의료보도 태도 변화 연구

-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
서 한 기

황우석 사태 前後 일간지의
건강의료보도 태도 변화 연구

-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지도 손명세 교수

2007년 6월 12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
서한기

서한기의 보건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7년 6월 12일

감사의 말씀

글 쓰는 직업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지만, 뉴스라는 읽을거리를 쓰기 위해 단지 눈으로 '읽었던' 논문과 학문적 지식을 깊고 넓게 하기 위해(물론 소위 가방끈을 길게 하기 위한 목적도 부인 못함)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발로 쓴' 논문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다.

힘든 작업이었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을 할까' 라고 후회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나마 번듯한 모습의 논문을 보니 '아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라는 뿌듯함이 절로 치솟는다.

'No Free Lunch.'

논문을 쓰면서 어떤 일이든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배웠다.

논문을 쓰기로 작정하고 난 뒤부터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처음에 잡았던 주제가 너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추상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중도 폐기했을 때는 눈앞이 캄캄하기도 했다. 쫓기는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다.

그 때 알았다. 아무리 대단치 않게 보이는 논문일지라도 쓴 사람의 땀이 송골송골 맺혀있다는 것을.

과학지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설계도를 그리고, 철골기둥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바르는 등 한 발짝 씩 한 발짝 씩 차곡차곡 쌓아나갈 때 비로소 튼튼한 지식의 성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논문을 쓰면서 뼈저리게 느낀 교훈 중 하나이다. 그렇다. 처음부터 완전

한 과학지식은 없다. 다만 새로 발견, 발명되거나 규명되는 과학적 사실에 활짝 열려 있는 과학지식체계가 있을 따름이다.

기꺼이 논문 지도와 심사를 맡아주신 손명세 교수님, 김소윤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 등 세 분의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논문 주제를 정하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 좋은 아이디어를 준 한겨레신문 김양중 기자에게 많은 신세를 졌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통계분석을 도와준 식품의약품안전청 김은희 보건연구원과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한글문서작업에 힘을 보태준 마쿨의 박승민 씨, 그리고 2% 부족한 외국어능력의 틈을 메워준 한국엠에스디의 유수경 씨에게도 감사하다.

또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배려해준 연합뉴스 정보과학부 김권용 부장님을 포함한 모든 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김용수 전(前) 부장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려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 아내가 없었다면 오늘은 없었을 지도 모른다. 언제나 한결 같이 지지해주는 아내에게 어떤 말로 고마움을 표시해야 할 지 모르겠다.

여러 면에서 흠이 많은 남편을 때로는 좋은 말로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분석을 곁들인 따끔한 말로 충고하기도 하며,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아내에게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너무 많은 빚을 졌다.

마지막으로 멀리 부산에서 아들을 걱정하며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아버님, 어머님께 이 논문을 바치고 싶다.

차 례

I. 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5
II. 이론적 고찰	7
1. 미디어와 보건의료보도에 관한 문헌연구	7
2. 황우석 사태와 언론보도에 관한 문헌연구	16
III. 연구방법	22
1. 연구대상의 설정	22
2. 용어의 정의와 변수	25
3. 통계학적 분석과 처리	31
IV. 연구결과	34
1. 일반현황	34
2. 연구성과기사의 질적 분석	40
2.1. 언론사별·연도별 연구 성과 기사의 진실성에 대한 분석	40
2.2. 언론사별·연도별 연구 성과 기사의 비편향성에 대한 분석	41
2.3. 언론사별·연도별 연구 성과 기사의 공정성에 대한 분석	43
2.4. 언론사별·연도별 연구 성과 기사의 충실성에 대한 분석	44
2.5. 기사 작성자 별 연구 성과 기사의 진실성에 대한 분석	46
2.6. 기사 작성자 별 연구 성과 기사의 비편향성에 대한 분석	47
2.7. 기사 작성자 별 연구 성과 기사의 공정성에 대한 분석	48
2.8. 기사 작성자 별 연구 성과 기사의 충실성에 대한 분석	49
3. 가설검증 결과	50

V. 고찰	54
VI. 결론	65
참고문헌	68
<부록 1>기사내용 분석표	72
<부록 2>연구 성과 기사의 유형	74
<부록 3>한국과학기자협회 '과학보도 윤리선언문'	82
<부록 4>'과학기술인 윤리강령'	84
<부록 5>조사대상 기사 목록	88
영문초록	100

표 차 례

<표 1> 연구대상 기사 변수분석표	31
<표 2> 전체 및 연구 성과 기사건수	34
<표 3> 기사형태	35
<표 4> 기사 작성자별 분석	37
<표 5> 분석대상기사의 대분류	38
<표 6> 언론사별·연도별 연구 성과 기사의 진실성 분석	41
<표 7> 언론사별·연도별 연구 성과 기사의 비 편향성 분석	42
<표 8> 언론사별·연도별 연구 성과 기사의 공정성 분석	44
<표 9> 언론사별·연도별 연구 성과 기사의 충실성 분석	45
<표 10> 4가지 평가척도 별·언론사별·연도별 연구 성과 기사 분류	46
<표 11> 기사 작성자 별 연구 성과 기사의 진실성 분석	47
<표 12> 기사 작성자 별 연구 성과 기사의 비 편향성 분석	48
<표 13> 기사 작성자 별 연구 성과 기사의 공정성 분석	49
<표 14> 기사 작성자 별 연구 성과 기사의 충실성 분석	50
<표 15> 첫 번째 가설 검증(연도별)	51
<표 16> 두 번째 가설 검증(연도별)	51
<표 17> 세 번째 가설 검증(연도별)	51
<표 18> 네 번째 가설 검증(연도별)	51
<표 19> 세 번째 가설 검증(신문사별)	52
<표 20> 세 번째 가설 검증(기사작성자별)	53

국문초록

황우석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2005년 11월 13일 미국 피츠버그대 제럴드 새튼 교수가 불법 난자취득 등 연구윤리 문제를 이유로 스스로 'My brother'라고 부르며 형제와 같이 지내던 황우석 박사와 결별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수많은 우여곡절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2006년 5월 23일 검찰이 수개월에 걸쳐 실시한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황우석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숙제로 남을 지도 모른다.

특히 황우석 사태 내도록 권력 감시자의 역할을 못하고 과학자의 근거 없는 연구 업적과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고 앵무새처럼 따라 부르기에 급급했던 언론이 뼈아픈 반성과 성찰 없이 예전의 잘못된 보도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황우석 사태의 해결 가능성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황우석 사태는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를 집약적으로, 총체적으로 드러낸 '언론 사건'이었다. 언론은 황우석 사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사실보도, 객관보도, 공정보도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황우석 사태를 겪으면서 언론이 보도태도에서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지금껏 황우석 사태 이후 언론의 변화양상을 계량적 측면에서 추적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황우석 사태 과정에서 '보수-중도-진보'의 색깔을 각각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조선일

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 3개 중앙일간지를 분석대상으로 골랐다.

2005년 1-12월과 2006년 1-12월 등 2년간에 걸쳐 이들 3개 일간지의 건강의료면에 실린 연구성과기사를 논문에 근거했는지, 해당 연구의 한계를 지적했는지, 관련 전문가의 크로스체크를 거쳤는지, 연구비 출처를 밝혔는지 등 4가지 평가측도를 가지고 꼼꼼하게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황우석 사태 이전 2005년 1년간 3개 중앙지에 실린 전체 연구성과기사는 156건이며, 황우석 사태 이후 2006년 한 해 동안 3개 언론사에서 보도한 전체 연구성과기사는 155건 이었다.

이 중에서 2005년 논문근거기사는 57건(36.54%), 2006년 논문바탕기사는 57건(36.77%)에 그쳤다. 2005년 한계지적기사는 7건, 2006년 한계지적기사는 10건에 불과했다. 2005년 크로스체크 기사는 17건, 2006년 크로스체크 기사는 22건에 머물렀다. 2005년 연구비 출처 밝힌 기사는 한 건도 없었고, 2006년 연구비 출처 공개 기사는 겨우 3건이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황우석 사태 이후 언론은 논문에 근거하고, 해당 연구의 한계를 꼬집으며, 관련 전문가의 크로스체크를 거치고, 연구비의 출처를 밝힌 연구성과기사를 더 많이 생산할 것이다.' 라는, 미리 설정한 네 가지 가설을 SAS프로그램을 이용해 카이제곱 검정으로 검증했다.

연구결과, 모든 가설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모든 가설은 기각됐다.

언론이 건강면의 연구성과기사를 보도하면서 황우석 사태 이전이나 이후나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는 결론이다. 언론은 결국 황우석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로 부터 별다른 교훈을 얻지 못했다고 풀이할 수 있는 셈이다.

어느 조직에서든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개선 노력

이다. 언론은 막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보의 부작용은 더욱 크다.

검증되지 않은 건강의료보도는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해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실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사는 애초부터 아예 보도하지 말아야 하는 보도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데스크를 비롯해 편집기자, 현장기자 등 언론계 구성원 전체의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주요 용어 : 황우석, 일간지, 보도태도, 연구윤리

I. 서 론

1. 연구배경

황우석 사태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교훈과 과제를 던졌다. 과장이 컸던 만큼 해결해야 할 숙제를 많이 남겼다.

사태 뒷수습을 하느라 과학계는 여태껏 여념이 없다. 사건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재점검하고, 연구윤리강령을 만드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이다. 과학기술부는 '연구 윤리.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정부 연구비를 대규모로 지원받는 기관의 경우 논문조작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유네스코(UNESCO) 한국위원회 등 4개 단체는 전문과 본문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과학기술인 윤리강령을 공동 제정했다.

이 강령은 연구 활동을 하면서 과학기술인이 보편적으로 준수해야 할 기본자세와 사회적 책임, 진실성 존중, 관련 법령의 준수 등 포괄적인 공통 윤리규범을 담고 있다.

서울대, 한국생명과학연구원 등 연구기관별로도 연구진실성위원회 형태의 연구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며 파문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의 강도는 연구부정 의혹으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교육부장관 자리에 오르지 못했고, 이필상 고려대학교 전 총장이 총장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황우석 신화'의 몰락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황 박사의 재기를 꿈꾸는 지지 세력이 있어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황우석 사태는 미해결 상태로 여전히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황우석 사단' 핵심 일원이었던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늑대 복제논문 오류논란으로 서울대가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가동해 조사를 벌이는 일이 발생하는 등 황우석 사태는 언제든 재발 가능한 휴화산 상태다.

이와 관련, 서울대 수의대 우희중 교수는 2007년 4월 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황우석 사태 이후 변한 것이 전혀 없다"며 "이런 일은 줄기세 포나 복제연구에 대한 지나친 환상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학은 그저 과학 연구로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하지만 황우석 사태에서 희망을 찾는 시도도 있다.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형기(2007)는 "이 사건은 무엇보다 건전한 담론을 통해 과학적 발견 또는 발명의 효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대원칙임을 다시금 확인해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구자의 윤리나 정직성과 같은 절차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특히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설픈' 연구자들의 선부른 시도 때문에 과학계의 판 자체가 깨져버리거나 아예 과학적 발견(발명) 자체가 없던 일이 돼 버릴 수도 있다는 교훈도 주었다"고 황우석 사태의 의미를 설명했다.

황우석 사태를 낳은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경로에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미시적으로 과학계 내부에서는 연구자가 과학 기만행위의 유혹에 빠지고 과학사기가 증가하는 이유를 외적 보상이 지배하는 과학자

사회의 보상체계 변화와 격화된 경쟁구조에서 찾고 있다

즉, 연구자들이 사생활을 희생해가면서 연구에 몰두하는 것은 과학의 상업화로 연구결과나 연구업적이 특허 등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과 직결되면서 연구동기 자체가 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명예나 내적 만족, 인류 건강과 복지를 위한다는 순수한 동기는 사라지고 개인의 영달이나 이익, 재정적인 이득이 연구의 동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진단이다(김일순, 2007; 김환석, 2007).

또 언론계에서는 이 사건을 언론의 병폐를 집약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보면서 언론 내부의 민주적 의사소통의 실패가 저널리즘의 위기를 낳고 결국 황우석 사태를 불러왔다고 비판하고 있다(이성주, 2006).

거시적으로는 '과학기술동맹' 혹은 '과학계-정부-언론의 삼각 동맹'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이어 황우석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이 사태는 단순히 황우석 박사라는 한 과학자 개인이 정부와 언론, 과학계, 나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사기 사건이 아니라는 진단이다. 정치권과 언론, 재계, 의학계, 과학계의 권력층이 황 박사와 여러 형태로 이해관계를 맺으면서 상호동맹을 형성, 발전시키다가 결국 붕괴된 사건이라는 해석이다. 황우석 파문은 황우석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특정 부문만의 문제도 아니며,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일대 사건이라는 것이다(강양구 등, 2006; 한학수, 2006).

물론 한국의 사회문화적 토양도 황우석 과학사기사건이 발생하는데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박정희 정권 이래 계속되는 뿌리 깊은 결과지상주의, 과학주의, 애국주의, 민족주의가 황우석 사태를 잉태하고 키웠다는 것이다.

아무튼 어떤 입장에서 황우석 사건을 해석하든 제 역할을 못한 언론의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언론의 본질이자 고유 기능이라 할 감시자로서의 구실을 못했던 것이 황우석 사태의 발생에 한몫 했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황우석 사태는 언론에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주문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과학기술시대에 언론이 해야 할 일은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비판적 탐구를 통해 현대 과학기술 활동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그 사회적 영향을 성찰해 대중과 공유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강양구 등, 2006).

2. 연구목적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가 압축된 사건이 황우석 사태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언론계 안팎에서 거의 이견이 없다.

언론이 오랫동안 황 박사가 주장하는, 검증되지 않은 연구 성과를 제대로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앵무새처럼 따라 불렀던 결과가 커커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황우석 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내일신문과 한국리서치가 2005년 12월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결과가 부풀려졌고 그 때문에 국민적 충격에 빠지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가적 이익을 앞세워 황 박사를 선정적으로 보도해 온 언론’이라고 응답한 국민이 3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확한 검증 없이 대대적 지원 등 황우석 부풀리기에 앞장 선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22.9%, ‘과학계 내부 문제’라는 응답이 19.8%였다. 한마디로 ‘황우석 충격’은 한국 언론이 안고 있는 치부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는 것이다(장행훈, 2006).

그러면 한국과학계, 나아가 사회 전체를 뒤흔들어놓았던 이 거대한 사건 이후에 과연 언론은 뼈를 깎는 성찰을 통해 환골탈태했을까? 황우석 사태가 마무리된 뒤, 황 박사 본인은 물론 ‘황우석 띄우기’에 앞장섰던 정치인, 보수 언론, 정부 등이 진정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회의적인 게 사실이다.

이 연구는 이런 물음에서 출발했다. 황우석 사태 이후 언론의 변화양상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일차적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황우석 쓰나미’가 한국 사회를 덮치고 지나간 이후 사회 각 방면의 복구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와중에서 특히 황우석 사태에 일조했던

언론의 보도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본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제껏 황우석 사태 이후 언론의 보도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은 정말 바뀌었는지 체계적으로 추적한 연구는 없었다.

이 연구는 먼저 중앙일간지의 건강의료면(헬스면)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통해 황우석 사태 전후 언론보도 태도를 분석해 그 변화여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의료과학보도를 위해 기자 개인 차원이나 혹은 언론사 차원의 바람직한 건강기사 생산방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찰하고 고민해보는 계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2005년, 2006년 2년간에 걸쳐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 3개 일간지의 건강 면에 실린 의학적 연구성과기사가 얼마나 '사실성'에 입각해 작성되고 있는 지 그 실태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황우석 사태 이후 언론보도의 변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건강의료 면의 연구성과기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몇 가지 평가척도를 검증도구로 활용해 황우석 사태 이후 과연 언론의 보도자세가 바뀌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미디어와 보건 의료 보도에 관한 문헌연구

대중매체는 중요하다.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다. 현대사회의 필수요소다. 사회제도의 하나로 미디어는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언론은 일상성, 대중성, 신속성, 신뢰성 등의 기본적 속성을 무기로 전 방위적으로 대중의 의식 깊숙이 파고 들어갈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중의 인식을 바꾸고 행동양식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국과학기자협회, 2004).

대중매체는 현대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대중매체는 단지 우리 일상 생활에서 많은 시간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현대인의 의식과 감정까지도 지배하고 있다(강상현 등, 2002).

그래서 일부 학자는 독자나 시청자 등 일반대중이 알고 있는 현실이나 인식한 현실은 사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현실 가운데 언론을 포함한 대중매체에 의해 '구성되고 정의된 현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Berger P. 등, 1966 ; 김양중, 2007 재인용).

건강분야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일반 공중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의학 정보원은 언론이다. 언론은 건강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의학정보가 일반 대중의 감정이나 인식,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한국언론재단(2001)의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의학건강 관련 기사를 읽고 나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질병은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등의 항목에서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를 기준으로 3.54-3.92점으로 높게 나왔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등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건강정보에 대한 대중의 욕구는 커졌다(문옥륜, 1992).

이제 건강정보는 더 이상 건강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다.

실제로 건강의료정보 전달과정에서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역할은 크다. 대중매체는 현대 보건의료분야에서 이미 주요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로 일반 대중의 보건의료에 대한 관점을 구축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고 있다(Karpf, 1998; 우석균 등, 1999 재인용).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 역시 미디어의 정보에 의존하며, 이를 통해 미디어는 거꾸로 보건의료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언론은 입법, 사법, 행정부에 이어 제4부라 불릴 만큼 정책결정 과정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보건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언론의 역할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대와 견제, 공생, 유착, 일체 사이를 오고 가는 역동적인 진자 운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유재천 등, 1994; 김양중, 2007, 재인용).

미디어가 사회의 공기로서 제 역할을 하고 적절히 활용될 경우 국민건강 증진이나 건강교육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미디어의 무분별한 개입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의학보도는 다른 일반적 보도와는 달리 인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건강보도에서 필수적인 정보가 누락되거나

나 과장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 건강에 유익한 방향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유해한 또는 무모한 건강행위를 유발하게 된다(김신정 등, 2001).

매스미디어의 역기능은 보건의학 정보를 다루면서 범하게 되는 또 다른 속성들에서 연유한다. 이를 보면 뉴스 가치 때문에 흥미 위주로 주제를 선정한다든지, 보건문제를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다룬다든지, 보도와 논평, 사실과 허구의 구분이 모호하다든지, 뉴스를 드라마화한다든지, 혹은 상업성, 비윤리성 때문에 미디어의 역기능이 초래된다는 지적이다(Liisberg, 1993; 우석균, 1995, 재인용).

이로 인해 의학적 효능이나 진위여부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과학적 근거가 불완전한 보건의학 정보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여과 없이 전달되기도 한다는 게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우려이다.

김상욱(1996)은 언론이 상업적 의도를 앞세운 채 건강과 의료를 하나의 언론 상품으로 인식해 검증되지 않은 최신 의학정보에서부터 한방비법에 이르기까지 비공식적 영역으로 취급 받던 내용까지 크게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 국내 언론의 의료관련 기사의 상당 부분은 예방이나 조기진단보다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진단이나 치료에 치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재영(1998), 조홍준(1999) 등은 언론이 예방보다는 치료 위주의 보도경향을 보이며, 보도내용 면에서도 최신 의료장비나 치료기법을 과다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기적의 암 치료제와 같이, 결국 허구로 밝혀진 사례들을 보도함으로써, 수용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 같은 대중매체의 역기능이 일반 대중의 보건의료 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더러 보건의료 문제의 우선순위를 왜곡해 제한된 보건의료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에 대한 불완전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불안, 약물, 식이, 생활패턴 등에서 일반 대중의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Hotham, 1995; 유은광 등, 1998, 재인용).

건강에 해로운 정보를 보도한다면 대중매체는 건강 지킴이가 아니라 질병을 퍼뜨리는 확산자가 될 수 있다.

김우룡(1997)은 우리나라 의료건강관련 기사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먼저 그는 정보로서 빈약할 뿐더러, 무엇보다 환자의 생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정확해야 하는데도 잘못된 정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며, 지나친 과장과 확대보도로 국민적 공포(public panic)를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실용화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과 신약을 함부로 소개해 환자들에게 허황된 꿈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의사나 병원 또는 연구기관의 공명심에서 발표된 자료를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홍보성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의학건강정보라는 이름을 앞세워 미신적 내용과 속설을 선정적, 흥미위주로 다루며, 왜곡된 정보를 보도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대한의학회(1997)가 '의학 정보제도 사업'의 일환으로 1995-1996년 사이 국내 9개 종합일간지의 건강의학 면에 게재된 보건 의학 정보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예상대로 '기대 이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전체 기사 598편 중에서 185편(30.9%)이 과

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특히 65편(10.5%)은 명백한 오류이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내용이었다.

또 31.4%는 독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가 누락돼 있었으며, 37.6%의 기사에서는 과장된 정보가 발견됐다.

14.2%의 기사는 건강과 건강관리 측면에서 해로운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28.6%는 불필요한 건강행태나 낭비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었다. 심지어 건강에 해로운 행위를 직접 권유하고 있는 기사도 7.9%에 이르렀다.

대한의학회는 이처럼 국민의 보건의료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보가 난무하는 주된 원인으로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내용이 여과 없이 기사화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대한의학회는 보건의학정보는 일반 대중 개개인의 보건의료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사의 오보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의학정보를 다룰 때는, '정확하지 않으면 아예 기사화 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기자와 언론사에 주문했다.

언론의 본질적 역할은 올바른 여론형성에 있다. 이를 통해 국민 대중의 의사를 대변하고 권리를 옹호하며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민의 지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언론 역할도 마찬가지다.

언론은 국민 대중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바람직한 보건의료 정책방향과 전망을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문옥륜, 1992).

권혁남(1992)은 언론은 의학지식이 부족한 수용자들에게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건언론과 보건담당기자의 일차적 역할은 의사 등의 보건전문가와 문외한인 대중을 연결, 건강과 의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있다는 것이다.

매스미디어와 보건의료와의 관계를 다룬 여러 연구들은 대중매체를 통한 건강의료정보 전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조홍준(1999)은 바람직한 보건의료보도를 위해서는 언론인과 보건의료 전문가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 등 두 집단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언론인의 경우 먼저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역시 언론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광고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다, 거대자본이 투입된 기업형 병원의 등장으로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형병원은 물론 개원의원들 사이에서도 환자유치를 위한 언론홍보가 강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전문직 내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연구결과가 병원이나 대학당국을 통해 '보도자료', '홍보자료'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배포되고 언론은 충분한 검증과정 없이 보도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 내부의 학술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연구결과가 언론에 흘러가지 않도록 걸러내는 장치가 필

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전문가 집단이 기자가 과학적이고 공정한 보건의료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의료관련 언론 보도의 객관성과 정확성 보장은 기사를 직접 작성하는 언론인만의 책임이 아니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우룡(1997)은 언론은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적 의료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쁜 의학정보를 책임 없이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언론은 일반 국민에게 전달하는 정보가 정확하고 진실하며 공명정대하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의료건강관련 기사 보도에서 유의해야 할 점으로 수용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색깔 입히기(coloring)와 과장보도를 삼가고, 조사결과와 임상실험결과 해석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완치, 개가, 획기적, 성공 따위의 성과를 부풀리는 과장된 말은 가급적 쓰지 않도록 하는 등 용어나 표현선택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의학 저널에 발표되지 않은 연구는 전문가 그룹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질병이나 수술 등의 추세는 수 년 간의 변화를 비교해 보고 난 뒤에 보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의료담당 기자는 항상 의학통계와 조사방식을 공부하고 의학 전문용어에 통달하려고 노력하는 등 전문성 제고에 힘쓰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의학자문팀을 구성해 상설 가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이 전달하는 의료보건 정보는 치료(a cure)가 아니라 저주(a curse)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수원(2000)은 미국 루이스빌 대학 건강증진센터 원장으로 오랫동안 보건의료관련 신디케이트 칼럼을 집필해온 의학자 겸 칼럼니스트인 브라이언트 박사의 말을 인용해 의료보도의 허점과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먼저 단정적 보도를 지양할 것을 제안했다. 건강과 관련된 연구 성과나 결과는 완전히 결론이 난 최종적인 것이 아님을 유념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것이다.

이어 의학 연구 성과가 보도할 만한 뉴스가치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특히 너무 과장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보건의학상의 획기적인 연구 성과는 하루아침에 불쑥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몇 십 년간의 노력이 필요한 법이다. 그런데도, 언론에는 획기적인 연구 성과가 너무 자주 보도되는 등 '획기적'이라는 수식어가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언론은 국민 대중에게 기적적인 치료제 개발은 매우 드문 일이며, 단시일 안에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 성과의 발표내용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어떤 연구 성과를 보도하려면 그 배경 자료를 충실하게 전달해 해당 연구가 기존의 축적된 성과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느 정도의 진전을 이뤘는지를 국민 대중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의학 연구 성과가 너무 고무적이거나 센세이션 하다면 일단 회의적인 시각으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02년 '건강보도가 국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조사' 연구결과에서 바람직한 의료보도 방안과 관련, 보건의료전문가의 적극적 참여와 검증 등을 통해 건강보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업성과 흥미위주의 보도에서 벗어나 건강생활 관리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의학뉴스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난치병 치료법이나 신약 개발과 같은 의료보도는 국민의 신뢰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보도방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박재영(1998)은 국민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의료보도에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문제해결의 책임은 결국 언론의 몫으로, 언론계 자체적으로 바람직한 원칙을 세우고 진실 보도를 외면하는 쪽이 도태되는 방향으로 언론사간 경쟁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 황우석 사태와 언론보도에 관한 문헌연구

황우석 사태와 언론이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김영석 한국언론학회장은 "황우석 사건은 한국 언론사의 오점"이라고 규정했다.

황우석 사태 이후 이 과학사기사건을 다룬 연구들이 다방면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 중에서 언론과 황우석 사태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내용 분석이나 담론분석, 저널리즘 철학적 관점에서 공론 장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못한 언론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전규찬(2006)은 황우석 사태 와중에 미디어는 지적, 대안적, 비판적 담론을 생성하지 못했고, 거꾸로 권력과 신화, 선전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심층적 논의와 개방된 소통 대신에 표피적 의혹과 일방적 풍문의 전달 창구로 기능했을 뿐 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판단자가 아닌 관여자로서 미디어가 황우석 사태의 비합리적 전개를 주도한 꼴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디어가 황 박사에 대한 신비주의 신화를 부추기며 그 신화체계의 일부로 합작해 생명과학의 숭고한 내러티브, 생명부활의 거룩한 스펙터클을 지속적으로 연출해 보여줌으로써 검증과 발굴이라는 저널리즘의 본령에서 한참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추측 보도와 과장 보도, 오보를 남발하는 것은 물론, 진실이 드러나면 슬그머니 진실의 불가지론을 유포하고, 진실의 다면주의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인기와 흥미, 호기심에 영합하는 위험한 대중주의 저널리즘의 나쁜 전형과 총체적 무능을 드러냈다고 일갈했다.

그는 저널리즘의 윤리회복을 위해 이성적이고 공개적인 소통의 공간으로 작동하고, 다중이 다양한 목소리로 정치실현에 참여토록 격려하는 다성적 저널리즘을 제안했다.

또 일반 대중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와 입체적 지식을 제공하는 지적 저널리즘과 모든 형태의 권력으로부터 끊임없이 해방과 탈출을 시도하는 자율 저널리즘을 제창했다.

나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권력에 비판적인 진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저널리즘 정신의 부활을 제시했다.

아울러 은닉된 현실을 취재해 입체감 있게 드러내는 탐사 저널리즘과 국가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에서, 거짓 국익도 아니고 사익도 아닌 바로 '공익'을 위해 기능하는 공공 저널리즘의 실현을 부르짖었다.

최영재(2006)는 과학사건인 황우석 과문은 황우석 '보도' 과동으로 확대되면서 언론의 문제가 되었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언론은 객관성, 공정성, 언론자유에 심각한 문제를 노출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언론은 황우석 사태에서 흥분한 나머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개인화, 영웅화, 신화화 함정에 빠져 객관성을 상실했고, 스스로 선정적 애국주의에 몰두하느라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문제제기를 무시해 버리는 불공정성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한국 언론은 황우석의 마술에 휘둘려 긍정적 몽상에 빠짐으로써 사회 환경과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실패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렇게 언론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로 그는 경매중계 방식으로 보도를 한데서 찾았다. 언론이 황우석의 과학성과를 보도하

면서 스포츠 기사와 사건뉴스, 근거 없는 애국주의 프레임으로 접근, 사실보도의 원칙을 위배하면서 황우석을 마치 스포츠 스타처럼, 그 연구과정을 국제 올림픽 경기 다루듯 보도했다는 것이다.

황우석의 PR을 검증하기는커녕 오히려 과장 증폭시키면서 덩달아 춤추고 과학을 영웅화, 신화화, 개인화의 세계로 몰아가 버림으로써 황우석의 줄기세포는 언론에 의해 어느새 과학이 아니라 스포츠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냉정한 권력 감시자로서의 언론의 역할 재정립을 주문했다.

강명구(2006)는 주요 일간지 등의 황우석 관련 담론을 살펴보면서 국익논리와 숭고한 과학담론, 상황윤리의 상대성 등 세 가지 담론전략에 의해 진실추구 억압 기제가 작동했다고 분석했다.

윤호진(2006)은 황우석 사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MBC PD수첩의 한학수 PD와 프레스안의 강양구 기사를 포함해 당시 황우석 보도를 맡았던 저널리스트 11명과 교수, 연구원 등 총 1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 황우석 사태가 과학보도에 끼친 영향과 교훈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사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건전한 판단력을 겸비한 저널리스트로서의 전문성과 자질 부족을 황우석 사태를 야기한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이로 인해 언론이 진실에 침묵했다는 것이다.

언론사의 술한 과학전문기자들이 황우석을 지난 몇 년간 지나칠 정도로 옹호해온 것은 과학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널리스트로서의 기본기를 갖추지 못한, 즉 소문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진실에 대한 탐구정신과 증거에 따른 객관 보도 원칙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맹목적인 과학기술주의와 한국 사회의 과도한 애국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해 결과적으로 사실 보도의 대원칙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

르렀다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고백했다.

여기에 당시 분위기에서 선불리 나섰다가는 심각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진실에 눈을 감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제2의 황우석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기자 집단의 자성과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며, 언론은 이제라도 과학기술의 대변자가 아니라, 과연 과학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진지하게 묻는 과학기술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우석 사건에 대한 사회학적 담론분석도 시도되고 있다.

이영희(2006)는 황우석 사태를 황우석이라는 야심 많은 한 과학자의 '과학적 비행'이란 개인적 속성에서 찾아서는 구조적 배경을 알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는 황우석 사태는 성장지상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과학기술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황우석 사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난 40년 간 유지된, 경제성장에의 기여라는 경제적 가치만을 우선하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성장지상주의와 권위주의로 요약되는 과학기술 정책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황우석 사태는 그간 실험실의 연구문화를 지배해왔던, 즉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그만 이라는 그릇된 성과주의 신화와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책을 경제적 측면만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인문적, 생태적 측면 등을 포괄적으로 사유하고 실천하는 사회 통합적 과학기술 정책으로 혁신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과학자 사회 내부의 비민주적이고 봉건적 연구문화를 혁신하는 실험실의

민주화, 과학자사회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문가주의 신화에 기반해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을 독점하고 있는 과학기술 파워엘리트들의 폐쇄성과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 사회의 감시와 참여의 폭을 넓히는,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환석(2006)도 황우석 사태는 단지 한 과학자의 부정행위나 스캔들이 아니라, 결과지상주의, 과학주의(전문가주의), 성장주의, 애국주의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지배적 패러다임이 초래한 대표적 사회병리현상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한국사회의 여러 모순과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징후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진중권(2006)은 황우석 사태 전개 과정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보인 격한 반응과 자정과 검증을 가로막는 사회적 분위기를 대중의 자발적 파시즘 현상으로 분석하면서 네티즌들의 비이성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근거 있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연구는 언론이 황우석 보도에서 권력 비판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공정보도, 객관보도, 사실보도에서 실패한 원인을 언론의 구체적인 뉴스 생산과정에 초점을 맞춰 조직 경제론적 측면에서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김희원(2006)은 공정성, 객관성, 진실성 등 언론의 규범적 가치를 강조하는 담론 분석적 접근으로는 언론이 황우석 사건 보도에서 사실 보도에 실패한 총체적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는 언론사도 자유 시장경제 질서에 참여해 '뉴스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자로 언론의 규범적 가치도 궁극적으로는 시장가치(열독률과 시청률)에 종속적인 가치일 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는 언론조직 구성원이 그 어떤 사건보다 '불확실성'을 두드러진 특징으로 하는 황우석 사건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즉 최대한 위험을 회피하려는 합리적,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황우석 보도에 실패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의 설정

이 연구는 2005년 1-12월, 2006년 1-12월 각각 1년간 총 2년간의 기간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 3개 일간지의 건강의료 면에 실린 전체 기사들 중에서 연구성과(혹은 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¹⁾

이동수(1995), 대한의학회(1997), 한국과학기자협회(2004) 등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의학단신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했다. 매우 짧은 정보를 제공해 정보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등 분석상의 어려움 때문이다.

또 주로 국내 연구성과기사로 분석대상을 좁힌 데는 황우석 사태가 언론이 국내 과학자의 연구결과를 여과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쓰기'를 하는 우를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

이들 3개 일간지 헬스 면의 연구성과기사의 변화 흐름을 추적하는 작업은 황우석 사태 전후로 언론 보도행태가 진지한 성찰을 통해 개선 기미를 보였는지, 제자리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오히려 퇴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 한컴사전은 연구개발성과를 어떤 일이나 사물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해 진리를 따져 보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 지식 등을 발달시키거나 적용해 새로운 물건이나 생각 따위를 만들어 낸 실적이나 결과라고 적고 있다

이 같은 의미를 바탕으로, 이경화(2004)는 연구개발성과 기사를 물리, 화학,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 환경공학, 기계공학 등과 같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자가 연구과정을 거쳐 얻은 지식을 적용해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만들어 내거나 또는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우리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과학적 사실을 규명한 실적을 일간지가 보도한 기사로 정의했다.

이들 3개 중앙지를 고른 이유는 황우석 사태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저마다 나름대로 구별되는 색깔을 드러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선일보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보수언론으로 황우석 사태 와중에 조금은 황 박사팀에 기운 보도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의 입을 빌려 처음으로 ‘줄기세포는 없다’는 특종보도를 내보내는 등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데 선두에 섰던 진보언론의 대표주자이다.

흔히 보수언론으로 분류되는 중앙일보는 일반적인 시각과는 달리 황우석 사태 때 대척점에 서 있는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두 신문사의 가운데 서서 중도적 입장에서 황우석 연구부정사건을 다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이 실시한 2006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제13회 미디어의 영향과 신뢰도 조사) 결과도 이들 3개 종합지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하는데 한몫했다.²⁾

또 2005년 1-12월과 2006년 1-12월 등 두 기간을 분석 기간으로 정한 것은 황우석 사태 전후의 언론보도 태도 변화추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이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황우석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2005년 11월13일(미국 날짜 11월12일)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제럴드 새튼 교수가 난자취득과정의 윤리문제를 제기하며 ‘형제’와도 같이 지냈던 황우석 박사와 결별을 선언하면서 폭발했다.

2) 이 조사에 따르면 이들 3개 신문은 열독률이 높다. 지난 1주일간 신문을 하루 이상 읽은 825명에게 ‘무슨 신문을 읽었는지’ 조사한 결과, 조선일보 22.1%, 중앙일보 16.2%, 한겨레신문 3.6% 등으로 모두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게다가 신뢰도(5점 척도 평가에서 전국 종합지는 3.27점)에서도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후 이 사태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숨 막히는 드라마를 연출한 끝에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이 사태는 서울대 조사위가 2005년 12월23일과 29일, 그리고 이듬해인 2006년 1월10일 세 차례에 걸쳐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황 박사팀이 2005년과 2004년에 사이언스에 발표한 두 편의 논문은 조작됐고,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는 만들어진 적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적어도 '과학과 연구진실성 측면'에서는 종결됐었다.

물론 황 박사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줄기세포가 바뀌치기 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후에도 이 사건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2006년 5월12일 검찰이 장기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김선중 연구원이 줄기세포를 섞어 심기 했고, 황 박사는 논문 데이터 조작을 지시했으며, 연구비 28억 원도 횡령했다면서 황 박사 등을 사기와 업무상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겨우 사회적으로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 연구는 이런 일련의 사태 전개 과정에서 황 박사팀이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했다고 결론 내린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 시점(2006년 1월10일)을 언론보도태도 변화 흐름을 파악하는 분기점으로 잡았다.

분석 자료는 연구자가 근무하는 연합뉴스 자료실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 3개 언론사의 독자서비스센터를 2007년 4-5월 두 달 간 탐나는 대로 직접 방문해 수집했다.

이들 언론사에 편철돼 있거나 데이터베이스(DB)에 PDF파일 형태로 보관중인 2005년과 2006년 각 언론사의 건강 면에 실린 전체 기사들을 찾아서 훑어본 뒤 이 중에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쓴 기사들을 일일이 읽어가며 분류하

는 방식으로 분석 자료를 모았다.

조선일보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주 수요일 마다 빠짐없이 헬스 섹션 면을 정기적으로 내고 있다.

중앙일보 역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두 차례에 걸쳐 '패밀리'란에 건강 기사를 싣고 있다. 이 신문은 간혹 가다 건강 면을 따로 간지형태로 제작해 내놓기도 한다.

그리고 한겨레신문은 2005년에는 '생명'이란 섹션 면에 건강 기사를 할애해 신다가 2006년 초부터는 본지면 안으로 건강뉴스를 옮겨 매주 수요일 마다 선보였다. 그러다 2007년 들어서에는 건강 면 출고 날짜를 다시 옮겨 매주 월요일 마다 게재하고 있다.

2. 용어의 정의와 변수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헬스 면의 연구성과기사들을 내용분석 기법을 적용해 분석했다. 내용분석방법은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와 관련된 변인들을 체계적, 객관적, 계량적인 방법으로 기술하는 연구방법이다.

이 방법은 분석 자료가 이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가를 파악하고,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 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한국과학기자협회, 2004; 유용하, 2001).

즉 주어진 기사에 나타난 내용을 정확하게 규정된 분류항목에 따라 각 항목에 합치된 요소를 선택해 측정하는 것이다.

내용분석 단위는 코딩단위(coding unit)와 문맥단위(context unit)로 나뉠 수 있는데, 이 연구는 코딩단위를 사용했다(유용하, 2001).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언론의 보도태도가 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분석도구는 기존 연구들의 건강기사 평가항목들을 참고해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손질해서 만들었다. 신문기사는 하나의 기사내용이 분석단위가 되기 때문에 기사 하나 하나를 개별적 수준에서 분석했다. 그간 언론의 건강 기사에 대한 연구는 꽤 많이 이루어져 평가항목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다.

과학이나 건강뉴스에 대한 국내 연구는 초기에는 주로 기사 유형이나 특성을 분류(김광기, 1983; 김지미, 1986)하는 초보단계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점차 진화해 기사내용의 과학적 적절성이나 정확성, 건전성 등을 따지는 쪽(최윤희, 1990; 이동수, 1995; 우석균, 1995; 대한의학회, 1997; 김은정, 1999; 한국과학기자협회, 2004)으로 발전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한의사협회(1997)와 한국과학기자협회(2004)의 연구에서 건강기사 내용분석에 사용한 일부 분석변수를 참고해 평가항목을 고안했다.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황우석 사태 이전 1년과 이후 1년 사이에 언론이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보도하는 태도와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와 연구결과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가치(news value)중 하나로 꼽히는 '사실성'을 기준으로 황우석 사태 전후 분석대상 기사들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도되었는지 비교했다.

황우석 사태는 언론이 사실보도의 대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데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성은 언론 윤리학자인 미국 미주리 대학 존 메릴(1993) 교수의 이른바 'TUFF'원칙 항목인 진실성(Truthful), 비 편향성(Unbiased), 충실성(Full), 공정성(Fair) 등의 뉴스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원칙은 있는 사실 그대로(Truthful), 편견을 갖지 않고(Unbiased), 사실을 모두(Full), 공정하게(Fair)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언론보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는 메릴의 4가지 TUFF원칙 항목을 주요변수로 설정하고 이 연구의 의도에 맞게 이 변수들을 관찰하고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내렸다.³⁾

이 연구에 사용된 주요변수들은 일반적으로 연구자의 연구 성과가 '논문'이란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기사는 흔히 동료 연구자의 리뷰를 거친 이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된다는 점을 착안해 보통 논문에 들어가는 기본 사항들, 즉 연구의 한계와 동료 평가, 연구비 출처 등을 기사에도 그대로 반영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변수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1) 연구 성과 기사의 진실성(학술지 논문, 학술대회 발표자료 근거 여부)

진실성이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왜곡이나 추측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연구자의 연구성과 자체가 의과학계의 검증과정을 거친 것이라면 이를 토대로 작성된 연구성과 기사의 진실성 또한 크게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3) 조작적 정의는 측정에 앞서 특정변수의 개념적 정의(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속성을 명확히 하는 것)를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조작적 정의는 실증연구와 실증검증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관찰 가능성, 측정 가능성과 직결된 정의로 자연과학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회과학분야처럼 관찰이 불가능한 개념들을 다루는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다.

과학적 연구는 개념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를 연결시키는 절차이다. 그래서 과학적 연구는 실증적 검증과정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데 만약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 없거나 잘못 내리게 되면 실증적 연구가 불가능해진다. 조작적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유승훈 등, 2005).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연구 성과 기사가 국내외 학술지에 실렸거나 실릴 예정인 논문,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학술대회나 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됐거나 발표될 예정인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쓰였는지 여부를 해당 기사의 진실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활용했다.

간단히 말해 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 자료에 근거해 작성된 기사이면 대체로 진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 연구 성과 기사의 비 편향성(연구 성과의 한계 지적 여부)

비 편향성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등하게 보도하는 것이다.

모든 과학기술은 '양날의 칼'이다.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건설적일 수도 있지만, 파괴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간 의학기사를 포함해 과학보도는 이런 과학기술의 양면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언론은 과학이나 의학발전의 부정적인 측면이나 한계까지도 짚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언론은 과학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 방지하는 예방적 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려왔던 게 사실이다(정대철, 1996).

이 같은 비판과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사에서 연구 성과의 한계를 지적해주는 노력이 절실하다. 모든 연구결과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기사가 연구 성과가 안고 있는 근본적 한계나 제한점을 밝혀주었을 경우에는 비 편향적이라고 평가했다.

(3) 연구 성과 기사의 공정성(다른 연구자에게 크로스체크를 했는지 여부)

공정성은 시각의 다양성에 대한 뉴스가치이다. 공정성은 대중이 하나의 사건을 편견 없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과 함께 전체적

관점을 제시한다(홍기선, 1988; 유용하, 2001, 재인용).

이 연구에서는 연구 성과 기사에서 다른 전문가를 통해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크로스체크를 했는지 여부로 공정성을 분석했다.

분석대상 기사에서 다른 전문가의 코멘트나 평가가 있으면 대체로 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건강보도는 과학보도의 한 분야로 전문성과 추상성, 복잡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 때문에 정보원의 편중이 심한 게 사실이다. 실제로 국내 언론은 특정 전문가나 단체의 정보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하지만 특정 정보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곧 정보원이 의도한 대로 정보가 왜곡되거나 이용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황우석 사태가 벌어진 데도 이 같은 정보의 치우침과 쏠림 현상이 큰 몫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강양구(2007)는 황우석 사태에서 언론이 보였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론과 황우석 박사간의 거리가 가까웠던 점을 꼽으면서 오랫동안 과학기술을 담당해온 상당수 기자들이 황 박사와 거의 '유착'이라고 불릴 법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그런 관계는 황우석 사태의 진실을 상당 기간 언론이 외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보 편중은 공정성을 잃고 편파 보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 연구논문은 "과학기술 관련 일간지 기사의 대부분은 과학기술처가 제공한 보도 자료에 비교적 충실한 편이었고, 보도 대상에 대한 태도 또한 대체적 긍정적인 보도가 65%나 되는 등 거의 일방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도 대상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한국과학기자협회, 2002).

(4) 연구 성과 기사의 충실성(연구비 출처 혹은 연구용역 과제 발주처

를 표시했는지 여부)

충실성은 뉴스보도에서 되도록 빠짐없이 모든 사항을 전달해 대중이 사건이나 사안 전반을 조망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뉴스가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지면의 제약이나 마감시간에 쫓긴 나머지 모든 정보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제공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고 상세하게 다룰 때 공정성이 높아질 것은 확실하다.

흔히 연구자를 빗대어 ‘아카데미 프로스티튜션(Academic prostitution)’이라고 비하하는 말이 있다. 연구비를 많이 주는 곳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연구자의 속성을 비꼬아서 꼬집는 말이다(유승흠, 2005).

연구자는 연구비를 타내려고 몸을 팔고, 심지어 영혼마저 팔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고 과언이 아니다.

연구자는 언제나 연구비에 목말라 있다. 그래서 연구비를 대주는 곳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위험을 안고 있다. 이른바 밀천을 대는 쪽의 입맛에 맞게 연구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유혹에 항상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비 출처 또는 연구용역 과제 발주처가 기사내용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분석대상 기사의 충실성을 가리는 평가척도로 삼았다.⁴⁾

4) 이와 관련, 세계 의학계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의학전문지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의 편집위원, 편집장으로 20년 넘게 일한 마르시아 안젤(Marcia Angell, 2007)의 뼈있는 진단과 충고는 가슴 깊이 새겨들을 만하다.

마르시아 안젤은 의학 연구에 미치는 제약산업의 영향력을 직접 몸으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자신에게 연구비를 지원한 스폰서의 이익과 논리에 포섭돼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연구자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녀에 따르면 ‘NEJM’에는 어떤 병의 원인이나 치료에 관한 주제의 연구 논문이 항상 실리는데, 문제는 점점 더 많은 연구가 제약회사의 후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약회사들은 그들의 약이 환상적인 것으로 보이도록 꾸미려고 들여보지도 못한 방식으로 연구를 배후 조종하고 있다는 게 마르시아 안젤이 오랜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이다.

3. 통계학적 분석과 처리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연구 성과 기사를 분석한 변수는 <표1>에 정리했다.

분석내용은 크게 분석대상 기사의 일반적 현황을 파악하는 변수와 기사 관련 변수, 그리고 기사내용이 얼마나 사실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질적 변수로 나누었다.

일반적 변수에는 신문종류와 게재연월, 게재요일, 분석기간의 전체 기사량과 분석대상인 연구 성과 기사량 등을 포함했다.

기사관련 변수는 기사의 형태, 기사의 크기(단수), 기사작성자, 그리고 기사내용의 대 분류, 기사내용의 세부전공분야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이 중에서 기사내용 대 분류에 따른 변수는 치료법(수술법 등), 의약품(치료약물 등),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보건행태(음주, 흡연, 다이어트 등), 기타(설문조사결과, 병원방문 환자 분석결과 등) 등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기사내용의 세부전공분야에는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등 전공분야별로 해당하는 영역을 파악해 분석했다.

기사내용의 질적 변수에는 메릴의 TUFF원칙에 따라 조작적 정의를 거쳐 만든 진실성, 비 편향성, 공정성, 충실성 등의 주요 4가지 분석항목을 집어 넣었다.

<표1> 연구대상 기사 변수분석표

내용	분석변수
일반적특성	신문종류, 게재연월, 게재요일, 분석기간 전체 기사량, 분석대상인 연구 성과 기사량
기사 관련 변수	기사의 형태, 기사의 크기, 기사작성자, 기사내용 대 분류, 기사내용 세부분류
기사내용의 질적 변수	진실성(학술지 논문, 학술대회 발표자료 근거 여부), 비 편향성(연구 성과의 한계 지적 여부), 공정성(다른 연구자에게 크로스체크를 했는지 여부), 충실성(연구비 출처 혹은 연구용역 과제 발주처를 표시했는지 여부)

그리고 황우석 사태가 언론의 보도태도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관찰, 평가하기 위해 이 연구는 선정된 주요변수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1. 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언론은 연구 성과 기사를 황우석 사태 이전보다 더 진실하게 보도할 것이다. (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언론은 황우석 사태 이전보다 논문에 근거한 기사를 더 많이 보도할 것이다.)

가설 2. 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언론은 연구 성과 기사를 황우석 사태 이전보다 더 비 편향적으로 보도할 것이다. (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언론은 황우석 사태 이전보다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는 기사를 더 많이 보도할 것이다.)

가설 3. 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언론은 연구 성과 기사를 황우석 사태 이전보다 더 공정하게 보도할 것이다. (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언론은 황우석 사태 이전보다 다른 전문가를 통해 크로스체크를 거친 기사를 더 많이 보도할 것이다.)

가설 4. 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언론은 연구 성과 기사를 황우석 사태 이전보다 더 충실하게 보도할 것이다.(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언론은 황우석 사태 이전보다 연구비 출처나 연구용역 과제

발주처를 밝힌 기사를 더 많이 보도할 것이다.)

이어 이렇게 설정한 4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척도의 형태로 명목척도를 활용해 4가지 주요 질적 변수를 측정했다.

측정은 연구자가 분석대상 기사들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기사내용을 미리 만든 분석표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이를 보면 연구대상 기사가 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면, '진실성을 담고 있다'고 표시하고(통계적으로는 '1'이라는 숫자로 표시), 그렇지 않으면 '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 자료에 기초하지 않았다'(통계적으로 '2'라는 숫자로 표시)고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나머지 3가지 주요변수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측정했다. 측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측정 자체가 '예(YES)-아니오(NO)'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분류로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이다.

분석변수에 대해서는 검증프로그램으로 SAS프로그램을 이용해 기본적인 빈도 분석과 이렇게 설정한 4가지 가설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다.

IV. 연구결과

1. 일반현황

이 연구에서 분석기간으로 잡은 2005년 1-12월과 2006년 1-12월 2년간을 통틀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 3개 언론사 헬스 면을 통해 보도된 전체 기사 건수는 <표2>와 같이 총 1,982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에는 조선일보 307건(15.49%), 중앙일보 255건(12.87%), 한겨레신문 330건(16.65%) 등으로 총 892건(45.01%) 이었다.

2006년의 경우에는 조선일보 445건(22.45%)이었고, 중앙일보 331건(16.7%), 한겨레신문 314건(15.84%) 등으로 총 1천90건(54.99%)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특히 이 연구의 분석대상기사로 선정한 연구 성과 기사만을 놓고 양적 분석을 해 보면 2005년에는 조선일보 56건(17.95%), 중앙일보 41건(12.82%), 한겨레신문 59건(19.23%) 등으로 총 156건(50.0%)이었다.

또 2006년에는 조선일보 60건(19.23%), 중앙일보 44건(14.42%), 한겨레신문 51건(16.35%) 등으로 총 155건(50.0%)으로 집계됐다.

<표2> 전체 및 연구 성과 기사건수(단위: 건, %)

구분	2005년		2006년		총계	
	전체기사	연구기사	전체기사	연구기사	전체기사	연구기사
조선일보	307 (15.49)	56 (17.95)	445 (22.45)	60 (19.23)	752 (37.94)	116 (37.18)
중앙일보	255 (12.87)	41 (12.82)	331 (16.70)	44 (14.42)	586 (29.57)	85 (27.24)
한겨레	330 (16.65)	59 (19.23)	314 (15.84)	51 (16.35)	644 (32.49)	110 (35.58)
계	892 (45.01)	156 (50.0)	1,090 (54.99)	155 (50.0)	1,982 (100.0)	311 (100.0)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연구 성과 기사의 형태를 보면 스트레이트 기사가 압도적이다.

전체적으로 스트레이트 기사는 2005년 137건, 2006년 132건 등 총 269건 (74.93%)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구결과를 독자가 알기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연구성과기사 자체 성격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기사형태는 2005년 18건, 2006년 22건 등 40건(22.28%)에 불과했고, 이 밖에 심층취재기사 2006년 1건, 의학칼럼 2005년 1건 등이었다.

<표3> 기사형태

구분	스트레이트	기획취재	심층취재	의학칼럼	총합계	
2005년	조선일보	51 (78.46%)	4 (12.31%)	0 (0.00%)	1 (9.23%)	56 (100.0%)
	중앙일보	30 (57.69%)	11 (42.31%)	0 (0.00%)	0 (0.00%)	41 (100.0%)
	한겨레	56 (90.32%)	3 (9.68%)	0 (0.00%)	0 (0.00%)	59 (100.0%)
	소계	137 (76.54%)	18 (20.11%)	0 (0.00%)	1 (3.35%)	156 (100.0%)
2006년	조선일보	57 (90.48%)	3 (9.52%)	0 (0.00%)	0 (0.00%)	60 (100.0%)
	중앙일보	31 (54.39%)	13 (54.61%)	0 (0.00%)	0 (0.00%)	44 (100.0%)
	한겨레	44 (73.33%)	6 (20.00%)	1 (6.67%)	0 (0.00%)	51 (100.0%)
	소계	132 (73.33%)	22 (24.44%)	1 (2.22%)	0 (0.00%)	155 (100.0%)
총계	269 (74.93%)	40 (22.28%)	1 (1.11%)	1 (1.67%)	311 (100.0%)	

기사분량(단수)은 연도별, 신문사별로 통틀어 1단 기사 101건(32.48%), 2단 기사 170건(54.66%), 3단 기사 28건(9.0%), 4단 기사 8건(2.57%), 기타 4건(1.29%) 등이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은 생활수준이 올라가면서 국민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건강보도의 중요성을 인식해 일찌감치 전문기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3개 언론사의 헬스 면은 의사출신기사나 아니면 오랫동안 의료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의사기자와 맞먹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기자들을 주축으로 꾸며지고 있다. 특히 중앙일보는 차장급 이상의 중견 기자들이 건강의료기사를 생산해내고 있다.

하지만 분석대상 기사를 쓴 기사작성자를 보면 신문사별로 또는 연도별로 차이가 난다.

언론사별로는 조선일보의 경우 2005년과 2006년 모두 일반기자가 전담하다시피 연구 성과 기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2005년에는 의사출신 전문기자가 연구 성과 기사를 주로 담당했으나, 해가 바뀌어 2006년 들어서는 차장급 중견 일반기자에게 바통이 넘어가면서 전문기자가 쓴 연구 성과 기사가 대폭 줄었다.

이는 회사내부 인사이동으로 의사출신 전문기자가 보건복지부 등 보건행정 쪽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건강의료에서 잠시 손을 뗐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앙일보에는 특이하게도 이른바 '바이라인'(by-line)'이라고 부르는 기사 집필자의 이름을 넣지 않은 연구 성과 기사가 많아 눈길을 끌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는 집필자 불명의 연구 성과 기사가 단 한 건도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그리고 분석결과, 바이라인이 붙어있지 않은 중앙일보 연구 성과 기사의 대부분은 홍보성 성격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일보에서 전문기자와 기자가 쓴 연구 성과 기사는 35건에 불과한데 반해 필자 불명으로 나온 연구 성과 기사는 50건에 이르렀다.

<표4> 기사 작성자 별 분석

구분	전문기자	일반기자	분야전문가	필자불명	합계	
2005년	조선일보	1 (1.79%)	55 (98.21%)	0 (0.00%)	0 (0.00%)	56 (100.0%)
	중앙일보	16 (39.02%)	0 (0.00%)	0 (0.00%)	25 (60.98%)	41 (100.0%)
	한겨레	50 (84.75%)	9 (15.25%)	0 (0.00%)	0 (0.00%)	59 (100.0%)
	소계	67 (42.95%)	64 (41.03%)	0 (0.00%)	25 (16.03%)	156 (100.0%)
2006년	조선일보	2 (3.33%)	56 (93.33%)	2 (3.33%)	0 (0.00%)	60 (100.0%)
	중앙일보	17 (38.64%)	2 (4.55%)	0 (0.00%)	25 (56.82%)	44 (100.0%)
	한겨레	7 (13.73%)	44 (86.27%)	0 (0.00%)	0 (0.00%)	51 (100.0%)
	소계	26 (16.77%)	102 (65.81%)	2 (1.29%)	25 (16.13%)	155 (100.0%)
총계	93 (29.90%)	166 (53.38%)	2 (0.64%)	50 (16.08%)	311 (100.0%)	

이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연구 성과 기사의 상당수는 <표5>에서 보듯이 특정 지역에 있는 특정 병원이 특정 질환으로 방문해 치료받은 환자들을 병원 자체적으로 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특정 연구자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 성과 기사 내용의 대 분류상 '기타'로 분류된 이 같은 기사는 모두 174건(55.95%)나 됐다.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수술법 등의 신 치료법을 소개한 경우가 89건 (28.62%)으로 역시 만만찮은 점유율을 보였다.

새로운 치료약물(한약 포함)의 치료성적이 좋다는 내용의 의약품 소개성 기사도 24건으로 7.72% 에 달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의학적 효능, 효과가 의심스러운 건강기능식품을 다룬 연구 성과 기사도 14건(4.50%)이나 됐다.

<표5> 분석대상 기사의 대 분류

구분	치료법	의약품	건강식품	의료기기	보건형태	기타	총계	
2005년	조선일보	10 (17.86%)	6 (10.71%)	5 (8.93%)	0 (0.00%)	4 (7.14%)	31 (55.36%)	56 (100.0%)
	중앙일보	22 (53.66%)	7 (17.07%)	3 (7.32%)	1 (2.44%)	1 (2.44%)	7 (17.07%)	41 (100.0%)
	한겨레	6 (10.17%)	0 (0.00%)	2 (3.39%)	1 (1.69%)	1 (1.69%)	49 (83.05%)	59 (100.0%)
	소계	38 (24.36%)	13 (8.33%)	10 (6.41%)	2 (1.28%)	6 (3.85%)	87 (55.77%)	156 (100.0%)
2006년	조선일보	14 (23.33%)	4 (6.67%)	1 (1.67%)	0 (0.00%)	0 (0.00%)	41 (68.33%)	60 (100.0%)
	중앙일보	27 (61.36%)	2 (4.55%)	1 (2.27%)	1 (2.27%)	0 (0.00%)	13 (29.55%)	44 (100.0%)
	한겨레	10 (19.61%)	5 (9.80%)	2 (3.92%)	0 (0.00%)	1 (1.96%)	33 (64.71%)	51 (100.0%)
	소계	51 (32.90%)	11 (7.10%)	4 (2.58%)	1 (0.65%)	1 (0.65%)	87 (56.13%)	155 (100.0%)
총계	89 (28.62%)	24 (7.72%)	14 (4.50%)	3 (0.96%)	7 (2.25%)	174 (55.95%)	311 (100.0%)	

건강의료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분석대상기사의 세부전문분야는 중첩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분석대상기사 내용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부분야를 바탕으로 분류한 결과, 내과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생활의 서구화와 가중되는 스트레스가 맞물리면서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척추 수술법의 새로운 흐름을 다룬 정형외과가 29건으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설 건강보험연구센터에서 지난해 5월 내놓은 보고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병·의원이 척추 수술을 한 뒤 청구한 22만5천229건의 요양 급여비를 분석해 보니 척추 수술은 2002년 4만1천573건, 2003년 5만6천484건, 2004년 6만6천933건, 2005년 1-9월 6만239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세를 보였다.

문제는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자연 치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수술요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으로 과잉의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⁵⁾

또 한의학이 22건으로 세 번째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어 신경과(18

5) 수술은 주로 척추 디스크를 제거하는 추간판 제거술과 척추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척추 고정술이 많았으며, 특히 척추 고정술의 경우 미국은 성인 10만 명 당 33명이 받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65명으로 거의 2배에 달했다고 한다.

이 처럼 '척추디스크가 수술하는 병'이라는 오해가 일반 국민의 뇌리에 박힌 데는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척추 수술법을 너무 쉽게 소개한 언론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건), 소아과(18건), 피부과(18건), 산부인과(15건), 외과(15건), 안과(14건), 비
뇨기과(12건), 식품영양학(11건), 흉부외과(10건), 성형외과(9건), 치과(8건),
정신과(7건), 기타(12건) 등의 순이었다.

2. 연구성과기사의 질적 분석

2.1. 언론사별·연도별 연구 성과 기사의 진실성에 대한 분석

이 연구의 분석대상기사들이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얼마나 논문이나 학
술발표 자료에 근거해서 작성되고 있는 지(연구 성과 기사의 진실성 정도)
를 살펴보았다.

황우석 사태 이전 2005년 1년 간 3개 언론사를 통틀어 전체 연구 성과
기사 156건 중에서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는 57건(36.54%), 논문근거
가 없는 기사는 99건(63.46%)으로 조사됐다.

신문사별로는 조선일보가 56건 중에서 논문 근거 기사 19건, 논문에 근
거하지 않은 기사 37건이었다.

중앙일보는 41건 중에서 논문 근거 기사 16건, 논문에 기반을 두지 않은
기사 25건이었고, 한겨레신문은 논문 근거 기사 22건, 논문근거가 없는 기
사 37건이었다.

황우석 사태 이후 2006년 한 해 동안 3개 언론사의 전체 연구 성과 기사
155건 중에서 논문근거 있는 기사는 57건(36.77%), 논문에 근거하지 않은
기사는 98건(63.23%)이었다.

신문사별로는 조선일보가 60건 중에서 23건을 논문에 근거해서 썼다고
명시했고, 나머지 37건의 기사는 논문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44건 중에서 15건만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29건의 기사는 논문근거가 없었다.

한겨레신문도 51건 중에서 논문근거 기사는 19건에 불과했고, 32건은 논문을 토대로 하지 않은 연구 성과 기사였다.

<표6> 언론사별 · 연도별 연구 성과 기사의 진실성 분석

구분	논문근거 유(有)	논문근거 무(無)	총합계	
2005년	조선일보	19 (33.93%)	37 (66.07%)	56 (100.0%)
	중앙일보	16 (39.02%)	25 (60.98%)	41 (100.0%)
	한겨레	22 (37.29%)	37 (62.71%)	59 (100.0%)
	소계	57 (36.54%)	99 (63.46%)	156 (100.0%)
2006년	조선일보	23 (38.33%)	37 (61.67%)	60 (100.0%)
	중앙일보	15 (34.09%)	29 (65.91%)	44 (100.0%)
	한겨레	19 (37.25%)	32 (62.75%)	51 (100.0%)
	소계	57 (36.77%)	98 (63.23%)	155 (100.0%)
총계	114 (36.66%)	197 (63.34%)	311 (100.0%)	

2.2. 언론사별 · 연도별 연구 성과 기사의 비 편향성에 대한 분석

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언론이 연구 성과 기사를 작성하면서 연구의 한계를 지적해주고 있는 지(연구 성과 기사의 비 편향성 정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황우석 사태 이전 2005년 1년 동안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 3개 중앙지의 헬스 면에 보도된 전체 연구성과기사 156건 중에서 해당 연구의 한계를 거론한 기사는 겨우 7건에 그쳤다.

이런 보도태도는 황우석 사태 이후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2006년 1년간 3개 언론사의 건강 면에 실린 연구 성과 기사 155건 중에서 한계를 꼬집은 기사는 10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사들이 연구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골고루 짚어주지 못하고 정보제공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해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7> 언론사별 · 연도별 연구 성과 기사의 비 편향성 분석

구분	한계지적 유(有)	한계지적 무(無)	총합계	
2005년	조선일보	2 (3.57%)	54 (96.43%)	56 (100.0%)
	중앙일보	2 (4.88%)	39 (95.12%)	41 (100.0%)
	한겨레	3 (5.08%)	56 (94.92%)	59 (100.0%)
	소계	7 (4.49%)	149 (95.51%)	156 (100.0%)
2006년	조선일보	3 (5.00%)	57 (95.00%)	60 (100.0%)
	중앙일보	4 (9.09%)	40 (90.91%)	44 (100.0%)
	한겨레	3 (5.88%)	48 (94.12%)	51 (100.0%)
	소계	10 (6.45%)	145 (93.55%)	155 (100.0%)
총계	17 (5.47%)	294 (94.53%)	311 (100.0%)	

2.3. 언론사별, 연도별 연구 성과 기사의 공정성에 대한 분석

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언론이 연구 성과 기사를 소개하면서 관련 분야 다른 전문가를 통해 얼마나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는지(연구 성과 기사의 공정성 정도)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황우석 사태 이전이나 이후나 특별히 바뀐 게 없었다는 것이다.

황우석 사태 이전 2005년 1년 간 분석대상 3개 언론사의 건강 면에 게재된 전체 연구 성과 기사 156건 중에서 크로스체크를 한 경우는 조선일보 9건, 중앙일보 3건, 한겨레신문 5건 등 17건 밖에 없었다.

이런 상태는 황우석 사태 이후에도 특별히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우석 사태 이후 2006년 1년간 3개 언론사 헬스 면을 통해 보도된 전체 연구 성과 기사 155건 중에서 크로스체크를 거친 기사는 22건이었다.

다만 2006년 들어서 조선일보가 46건의 연구 성과 기사 중에서 다른 언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14건의 기사에 대해 크로스체크를 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표8> 언론사별 · 연도별 연구 성과 기사의 공정성 분석

구분	크로스체크 유(有)	크로스체크 무(無)	총합계	
2005년	조선일보	9 (16.07%)	47 (83.93%)	56 (100.0%)
	중앙일보	3 (7.32%)	38 (92.68%)	41 (100.0%)
	한겨레	5 (8.47%)	54 (91.53%)	59 (100.0%)
	소계	17 (10.90%)	139 (89.10%)	156 (100.0%)
2006년	조선일보	14 (23.33%)	46 (76.67%)	60 (100.0%)
	중앙일보	2 (4.55%)	42 (95.45%)	44 (100.0%)
	한겨레	6 (11.76%)	45 (88.24%)	51 (100.0%)
	소계	22 (14.19%)	133 (85.81%)	155 (100.0%)
총계	39 (12.54%)	272 (87.46%)	311 (100.0%)	

2.4. 언론사별 · 연도별 연구 성과 기사의 충실성에 대한 분석

황우석 사태의 폭풍이 지나가고 난 뒤 국내 언론이 연구 성과 기사를 다루면서 연구에 투입된 연구비의 출처를 얼마나 밝히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국내 언론은 통계적으로 의미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황우석 사태 이전이나 이후나 연구자의 연구비가 어디에서 나오는 지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무관심 그 자체였다.

2005년 한 해 동안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을 3개 언론사를 모두 합쳐 연구비의 출처를 밝힌 연구 성과 기사는 전체 156건 가운데 눈을 씻고 찾아 봐도 단 한 건도 발견할 수 없었다.

2006년으로 넘어와서도 사정은 거의 변하지 않아 연구자가 어디에서 연

구비를 끌어왔는지를 밝힌 기사는 조선일보 1건, 한겨레신문 2건 등 3건의 기사에 불과했다.

<표9> 언론사별 · 연도별 연구 성과 기사의 충실성 분석

구분	연구비출처 유(有)	연구비출처 무(無)	총합계	
2005년	조선일보	0 (0.00%)	56 (100.0%)	56 (100.0%)
	중앙일보	0 (0.00%)	41 (100.0%)	41 (100.0%)
	한겨레	0 (0.00%)	59 (100.0%)	59 (100.0%)
	소계	0 (0.00%)	156 (100.0%)	156 (100.0%)
2006년	조선일보	1 (1.67%)	59 (98.33%)	60 (100.0%)
	중앙일보	0 (0.00%)	44 (100.0%)	44 (100.0%)
	한겨레	2 (3.92%)	49 (96.08%)	51 (100.0%)
	소계	3 (1.94%)	152 (98.06%)	155 (100.0%)
총계	3 (0.96%)	308 (99.04%)	311 (100.0%)	

한편 논문근거 유무와 한계지적 유무, 크로스체크 유무, 연구비출처 유무 등 4가지 평가척도를 바탕으로 언론사별, 연도별 전체 연구 성과 기사를 분류한 결과는 <표10>와 같다.

연구 성과 기사에서 4가지 평가척도 중 한 가지도 없으면 '0', 한 가지만 있으면 '1', 2가지 이상 있으면 '≥2'로 구분했다.

이에 따르면 황우석 사태 이전인 2005년 3개 언론사 헬스면 전체 연구 성과 기사 156건 중에서 논문근거가 없고, 한계지적 및 크로스체크를 하지 않았으며, 연구비 출처도 밝히지 않은 기사가 89건(57.05%)에 이르렀다.

황우석 사태 이후에도 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않아 2006년 3개 언론사를 통틀어 전체 155건의 연구 성과 기사 중에서 4가지 평가척도를 하나도 담고 있지 않은 기사가 86건(55.48%)이었다.

<표10> 4가지 평가척도 별 · 언론사별 · 연도별 연구 성과 기사 분류

구분	0	1	≥2	총합계	
2005년	조선일보	34 (60.71%)	14 (25.00%)	8 (14.29%)	56 (100.0%)
	중앙일보	23 (56.10%)	15 (36.59%)	3 (7.32%)	41 (100.0%)
	한겨레	32 (54.24%)	24 (40.68%)	3 (5.08%)	59 (100.0%)
	소계	89 (57.05%)	53 (33.97%)	14 (8.97%)	156 (100.0%)
2006년	조선일보	30 (50.00%)	20 (33.33%)	10 (16.67%)	60 (100.0%)
	중앙일보	27 (61.36%)	13 (29.55%)	4 (9.09%)	44 (100.0%)
	한겨레	29 (56.86%)	15 (29.41%)	7 (13.73%)	51 (100.0%)
	소계	86 (55.48%)	48 (30.97%)	21 (13.55%)	155 (100.0%)
총계	175 (56.27%)	101 (32.48%)	35 (11.25%)	311 (100.0%)	

2.5. 기사 작성자 별 연구 성과 기사의 진실성에 대한 분석

신문사별, 연도별 분석과는 별도로 기사 작성자 별로 황우석 사태의 영향과는 관계없이 헬스 면의 연구 성과 기사를 쓰면서 얼마나 논문에 근거해서 작성하는 지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기자가 일반기자에 비해서는 논문에 근거해서 연구 성과 기사를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기자 작성자를 알 수 없는 필자 불명과 비교해서는 논문 근거 기사를 더 많이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11> 기사 작성자 별 연구 성과 기사의 진실성 분석

구분	논문근거 유(有)	논문근거 무(無)	총합계	
2005년	전문기자	28 (41.79%)	39 (58.21%)	67 (100.0%)
	일반기자	19 (29.69%)	45 (70.31%)	64 (100.0%)
	필자불명	10 (40.00%)	15 (60.00%)	25 (100.0%)
	소계	57 (36.54%)	99 (63.46%)	156 (100.0%)
2006년	전문기자	12 (46.15%)	14 (53.85%)	26 (100.0%)
	일반기자	38 (37.25%)	64 (62.75%)	102 (100.0%)
	관련전문가	0 (0.00%)	2 (100.0%)	2 (100.0%)
	필자불명	7 (28.00%)	18 (72.00%)	25 (100.0%)
소계	57 (36.77%)	98 (63.23%)	155 (100.0%)	
총계	114 (36.66%)	197 (63.34%)	311 (100.0%)	

2.6. 기사작성자 별 연구 성과 기사의 비 편향성에 대한 분석

전문기자라고 해서 일반기자에 비해 특별히 연구 성과 기사를 작성하면서 해당 연구의 한계와 제한점을 지적하는 등 균형감각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엿볼 수 없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12> 기사 작성자별 연구 성과 기사의 비 편향성 분석

구분	한계지적 유(有)	한계지적 무(無)	총합계	
2005년	전문기자	4 (5.97%)	63 (94.03%)	67 (100.0%)
	일반기자	3 (4.69%)	61 (95.31%)	64 (100.0%)
	필자불명	0 (0.00%)	25 (100.0%)	25 (100.0%)
	소계	7 (4.49%)	149 (95.51%)	156 (100.0%)
2006년	전문기자	3 (11.54%)	23 (88.46%)	26 (100.0%)
	일반기자	6 (5.88%)	96 (94.12%)	102 (100.0%)
	관련전문가	0 (0.00%)	2 (100.0%)	2 (100.0%)
	필자불명	1 (4.00%)	24 (96.00%)	25 (100.0%)
소계	10 (6.45%)	145 (93.55%)	155 (100.0%)	
총계	17 (5.47%)	294 (94.53%)	311 (100.0%)	

2.7. 기사 작성자 별 연구 성과 기사의 공정성에 대한 분석

분석결과, 연구 성과 기사 작성과정에서 일반기자가 전문기자보다는 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하는데 좀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기자가 전문성으로 무장하다 보니 다른 관련 전문가를 통한 크로스 체크 대목에서 일반기자보다 오히려 더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풀이가 가능하다.

<표13> 기사 작성자별 연구 성과 기자의 공정성 분석

구분	크로스체크 유(有)	크로스체크 무(無)	총합계	
2005년	전문기자	5 (7.46%)	62 (92.54%)	67 (100.0%)
	일반기자	12 (18.75%)	52 (81.25%)	64 (100.0%)
	필자불명	0 (0.00%)	25 (100.0%)	25 (100.0%)
	소계	17 (10.90%)	139 (89.10%)	156 (100.0%)
2006년	전문기자	3 (11.54%)	23 (88.46%)	26 (100.0%)
	일반기자	19 (18.63%)	83 (81.37%)	102 (100.0%)
	관련전문가	0 (0.00%)	2 (100.0%)	2 (100.0%)
	필자불명	0 (0.00%)	25 (100.0%)	25 (100.0%)
소계	22 (14.19%)	133 (85.81%)	155 (100.0%)	
총계	39 (12.54%)	272 (87.46%)	311 (100.0%)	

2.8. 기사 작성자 별 연구 성과 기자의 충실성에 대한 분석

전문기자나 일반기자나 건강 면의 연구 성과 기사를 쓰면서 연구비의 출처를 거의 밝히지 않았다.

아마 기자들이 연구비 출처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지면의 제약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구비 출처 부분이 기사작성이나 편집과정에서 빠진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표14> 기자작성자별 연구 성과 기자 충실성 분석

구분	연구비출처 유(有)	연구비출처 무(無)	총합계	
2005년	전문기자	0 (0.00%)	67 (100.0%)	67 (100.0%)
	일반기자	0 (0.00%)	64 (100.0%)	64 (100.0%)
	필자불명	0 (0.00%)	25 (100.0%)	25 (100.0%)
	소계	0 (0.00%)	156 (100.0%)	156 (100.0%)
2006년	전문기자	1 (3.85%)	25 (96.15%)	26 (100.0%)
	일반기자	2 (1.96%)	100 (98.04%)	102 (100.0%)
	관련전문가	0 (0.00%)	2 (100.0%)	2 (100.0%)
	필자불명	0 (0.00%)	25 (100.0%)	25 (100.0%)
소계	3 (1.94%)	152 (98.06%)	155 (100.0%)	
총계	3 (0.96%)	308 (99.04%)	311 (100.0%)	

3. 가설검증 결과

연구 성과 기사들에 대한 이 같은 질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통계프로그램인 SAS프로그램을 검증도구로 사용해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앞서 설정한 4가지 가설, 즉 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언론은 논문에 근거하고, 한계를 지적하며, 크로스체크를 거치면서, 연구비 출처를 밝히는 기사를 더 많이 보도할 것이라는 가설들을 검증했다.

검증은 연도별, 신문사별, 기사작성자 별로 실시했다. 먼저 연도별로는 아래 <표15>, <표16>, <표17>, <표18> 에서와 같이 모든 가설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거나 응답 수가 적어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표15> 첫 번째 가설 검증(연도별)

통계량	자유도	값	확률
카이제곱	1	0.0019	0.9656
			p<0.05

<표16> 두 번째 가설 검증(연도별)

통계량	자유도	값	확률
카이제곱	1	0.5805	0.4461
			p<0.05

<표17> 세 번째 가설 검증(연도별)

통계량	자유도	값	확률
카이제곱	1	0.7702	0.3802
			p<0.05

<표18> 네 번째 가설 검증(연도별)

통계량	자유도	값	확률
카이제곱	1	3.0488	0.0808
			p<0.05

따라서 모든 가설은 기각됐다.

다시 말해 황우석 사태 이후에도 국내 언론은 황우석 사태 이전보다
논문 에 근거한 기사를 더 많이 보도하지도 않고,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는

기사를 더 많이 내보내지도 않았다.

또 황우석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은 황우석 사태 이전에 비해 다른 전문가의 크로스체크를 거친 기사를 더 많이 보도하지 않았다. 연구비의 출처나 연구용역 과제 발주처를 밝힌 기사를 더 많이 생산하지도 않았다.

결론적으로 국내 언론은 전체적으로 황우석 사태 이후 보도태도에서 달라진 게 없었다.

다만 세 번째 가설과 관련해 신문사별로는 <표21>에서처럼 황우석 사태 전후 건강 면의 연구 성과 기사를 작성하면서 다른 전문가를 통해 크로스체크를 하는데 있어서 유의한 차이(p 값=0.0078<유의수준 α =0.05)를 보였다.

<표19> 세 번째 가설 검증(신문사별)

통계량	자유도	값	확률
카이제곱	2	9.6993	0.0078
			$p < 0.05$

그 순서는 조선일보 19.83%, 한겨레신문 9.91%, 중앙일보 5.88% 등으로 조선일보가 황우석 사태 이후 연구 성과 기사를 내보내면서 관련 전문가를 통한 크로스체크를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황우석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삼아서 기사작성자 별 보도태도를 분석한 결과, 기사 집필자 간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전문기자가 일반기자보다는 논문에 기반을 둔 연구 성과 기사를 쓰려고 하지만 바이라인이 없어 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집필자 불명과 비교해 유

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검증결과, <표20>에서와 같이 일반기자가 전문기자나 필자불명에 비해 크로스체크를 하는데 있어서 유의한 차이(p 값=0.0023 < 유의수준 α =0.05)를 보였다.

<표20> 세 번째 가설 검증(기사작성자 별)

통계량	자유도	값	확률
카이제곱	3	14.4667	0.0023

$p < 0.05$

일반기자가 전문기사보다는 크로스체크를 더 많이 한다는 말이다.

V. 고 찰

박성철(2007)은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늑대복제 논문 논란과 관련해 2007년 5월9일 언론비평 주간지 <미디어오늘>에 '침단연구보도, 이제 손을 떼야 하는 이유'란 글을 기고했다. 그는 여기에서 황우석 사태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국내 언론의 고질적인 과학보도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국 언론은 황우석 사태 와중인 2005년 말에 한국과학기자협회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선언했던 '과학보도 윤리선언'과는 정반대의 원칙들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가 특히 비판의 날을 세우는 대목들은 한국 언론이 연구자를 무작정 믿어주는 자세를 보이고, 오로지 해당 연구자의 입에만 의존해 그 목소리만 듣고 보도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다른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해당 연구결과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철저히 외면한다는 것이다.

이런 왜곡된 한국 언론의 과학보도 원칙들은 황우석 박사 보도에서뿐 아니라 이병천 교수의 늑대복제 논문 과문 과정에서 그대로 적용됐다고 그는 비판한다.

실제로 복제늑대의 경우 늑대의 체세포와 개의 난자를 사용함으로써 개도, 늑대도 아닌 제3의 잡종동물이 됐다. 이런 이종교잡 동물의 인위적 복제는 상당한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런데도 모든 언론이 약속한 듯 윤리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고 그는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과학보도는 단순히 객관적 연구결과를 과학자들이 불러주는

대로 마냥 받아쓰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과학기자의 최우선 조건으로 '끊임없이 의심하는 자세'를 꼽은 <과학보도론>의 저자 워렌 버켓 교수의 말을 빌려 첨단과학에 대한 취재와 보도과정은 끊임없는 의심의 연속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학자나 연구기관이 부정직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학 지식의 속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즉 이제 갓 세상에 나온 과학적 연구 성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연구자에 의해 반복적이고 누적적인 검증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개별 연구결과를 가지고 '꽤거'라며 무모하게 치켜세우는 보도는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과학에 대한 의심의 끈을 놓치는 바로 그 순간, 첨단 과학연구에 대한 보도는 과장보도, 허위보도로 추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언론은 겸허한 자기성찰과 반성을 통해 이제라도 과학보도의 지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여전히 연구실 중계방송을 하려고 한다면, 또 국민들에게 연구결과를 '사건(event)'이 아닌 '과정(process)'으로 이해시키려는 마음의 자세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는 첨단과학 연구결과에 대한 보도를 이제라도 과감하게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보도의 원칙이라 할 '사실성'에 입각하지 않았다고 요약되는 이 같은 언론의 맹목적 과학보도태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화된 서구사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신경정신과 의사들인 아서 바스키(Arthur J. Barsky)와 에밀리 던스(Emily C. Deans 2007)도 '의료화(과거에는 일상으로 받아들였

던 질병이나 증상이 점차 의학치료의 범주에 포함되는 현상) 과정을 통해 의료기관과 함께 질병을 만들면서 통증을 확대시키고 만성증상을 더욱 견디기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주범으로 대중매체를 지목했다.

대중매체가 의료와 의사에 대한 환상을 심고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들은 텔레비전의 의학 관련 보도와 기획 다큐멘터리, 라디오 의학 코너, 신문의 건강 칼럼마다 의학 정보와 경고가 넘쳐난다고 꼬집었다. 이들이 지적하는 더욱 큰 문제는 대중매체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통증이나 단순히 쿡쿡 쑤시는 느낌이라 하더라도 확대해 묘사된다는 점이다.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수 있는 일도 괜히 걱정을 하게 한다고 이들은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대중매체는 의학 발달의 힘을 실제 가능성 이상으로 부풀려 보여준다고 비판의 칼을 들이댔다. 순수하게 실험단계에 머물러 있는 예비연구결과를 마치 즉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완성된 치료법처럼 묘사하는 사례가 너무 흔하다는 것이다. 곧바로 상용화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고 명확한 해결책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부풀린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편향된 보도는 이를 읽는 수용자의 기대를 무한정 올리지만 그 내용이 과장(혹은 잘못된 정보)임이 밝혀졌을 때에는 혼란과 좌절에 빠뜨릴 수 있으며, 결국에는 더 큰 통증과 불행, 근심과 고통을 안겨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시공간을 뛰어넘어 박성철(2007)과 미국의 두 의사 아서 바스키, 에밀리 던스(2007) 등 동서양의 연구자들은 마치 서로 입을 맞춘 것처럼, 언론의 과학보도에 대해 똑 같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조목조목 꼬집은 국내외 언론의 잘못된 보도태도는 이번 연구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됐다.

진실한 과학보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황우석 사태에도 불구하고 의학 연구 성과를 다룬 국내 언론의 보도태도에서는 전혀 변화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었다. 황우석 사태 이전이나 이후나 달라진 게 없었다. 하루아침에 언론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황우석 사태 전후 언론의 보도태도 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4가지 가설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첫 번째 황우석 사태 이전이나 이후나 논문조차 나오지 않은 연구 성과를 아무 거리낌 없이 보도하는 기사들이 범람하고 있다.

황우석 사태가 견잡을 수 없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애초 황우석 박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주장하는 연구 성과를 언론이 곧이곧대로 받아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황 박사가 서울대 수의대의 일개 무명의 교수에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며 본격 뜨게 된 직접적 계기는 1999년 황 박사 자신이 우리나라 최초의 체세포 복제소라고 주장한 '영롱이'탄생 사건이었다.

당시 과학기자들은 영롱이가 복제됐다는 황 박사의 주장만을 기사로 실었을 뿐이었다. 그것이 어떻게 검증되었는지, 논문이란 결과물로 학술지에 실렸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물론 영롱이에 대한 논문은 없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검증절차는 없었다. 이 같이 검증과정에 구멍이 뚫려 있는 연구 성과를 기사화하는 국내 언론의 원칙 아닌 원칙은 황우석 사태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 3개 언론사 헬스 면을 통해 황우석 사태 전후인 2005년과 2006년 각각 보도된 연구 성과 기사들 중에서 논문에 근거하지 않은 기사들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서 금방 드러난다.

황우석 사태 이전 2005년 1년 간 3개 신문사를 통틀어 전체 연구 성과 기사 156건 중에서 논문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기사는 99건(63.46%)으로 조사됐다. 황우석 사태 이후 2006년 한 해 동안에도 3개 언론사의 전체 연구 성과 기사 155건 가운데 논문에 근거하지 않은 기사는 98건(63.23%)이었다.

국내 언론이 연구 성과 기사를 쓰면서 최소한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보통 오보는 확인과정 없이, 과학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쓸 때 일어난다. 시간에 쫓겨서, 다른 언론사가 보도하니 소위 '몰'떡을까 봐 두려워서 일단 신고 보는 데서 큰 오보가 발생한다. 사실 확인에 소홀할 때 오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황우석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세계적인 과학저널에 제출한 논문 데이터마저 대담무쌍하게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세상이다. 따라서 논문으로 나온 연구 성과를 기사화하는데도 신중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따라서 언론은 과학자 집단의 상호 검증장치라 할 수 있는 논문으로 나오지 않은, 즉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연구자의 연구 성과는 그것이 겉으로 아무리 대단해 보이더라도 거들떠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황우석 사태와 같은 연구 부정행위 재발을 막거나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은 연구 성과를 보도하게 될 경우에도 적어도 해당 연구의 한계라도 지적해 주어야 한다.

아니면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관련 연구자에게 검토를 받는 등 크로스체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사실보도에 충실해야 하는 언론의 최소한의 의무이자 도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당위명제는 황우석 사태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황우석 사태 이후 연구 성과의 한계를 꼬집어주는 기사가 더 많이 보도될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은 검증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다. 또 관련 분야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거친 기사가 황우석 사태 이후 더 많이 실릴 것이라는 세 번째 가설 역시 무참히 깨졌다.

연구의 한계를 꼬집어주는 연구 성과 기사는 2005년 1년 간 3개 언론사 건강 면 연구 성과 기사 156건을 통틀어 겨우 7건에 그쳤다. 황우석 사태 이후에도 이런 불성실한 보도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2006년 1년 간 3개 신문사의 건강 면에 실린 연구 성과 기사 155건 중에서 한계를 지적한 것은 10건에 머물렀다.

또한 크로스체크에도 소홀했다. 3개 언론사 건강 면 연구 성과 기사 중에서 관련 전문가의 크로스체크를 거친 기사는 2005년 1년 간 17건, 2006년 1년 간 22건 등으로 황우석 사태 전후 별 차이가 없었다.

연구비 부정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서울대는 연구비를 연구처를 통해 중앙에서 일괄 통제하고 있다. 관리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교내 연구비 부정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다.

연구비가 없으면 연구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연구자가 실제

연구보다는 연구비를 따오기 위한 연구계획서 작성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는 웃지 못 할 풍경이 연구실에서 펼쳐지기도 한다.

그 만큼 연구비는 연구자의 목숨 줄과 같은 것이다. 연구의 경제적 원천이자 버팀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은 연구자의 연구비가 어디에서 나오는 지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었다. 연구현장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언론이란 거울을 통해서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언론이 과학뉴스를 보도하면서 연구비 출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연구결과 자체가 연구비를 대준 쪽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이를 테면 제약사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이뤄지는 임상연구의 경우 해당 제약사 입김에 영향을 받지 않은 수 없는 게 국내외 연구의 현주소이다.

실제로 우희종(2007)에 의하면 과거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에 의해 활동하는 것이기에 실험 연구에 수반되는 지적 활동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신 자유주의시대에 과학은 생산성과 효율의 극대화라는 이름 아래 파생 기술의 산업 적용이라는 상업적 입장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당연히, 과학을 수행하는 과학자 집단 역시 기술개발에 대한 보상체계의 포로로 전락했다.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외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과학자의 세계도 단순한 지적 활동의 장이 아니라 시적, 공적 경쟁의 장소로 되어 버렸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특히 경쟁은 생존이기에 살아남기 위해 일부 과학자는 때로 연구윤리와 학자의 양심을 저버리고 조금씩 퇴색하고 있다는 게 그의 냉정한 평가이

다.

따라서 연구 성과 기사를 쓸 때 연구자가 연구비를 어디에서 끌어왔는지 되도록 적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용자인 일반 국민이 그 연구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판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나온 언론의 연구비에 대한 인식은 극히 낮은 것이었다. 아예 연구비 출처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듯했다.

2005년 한 해 동안 3개 중앙지 건강 면의 연구 성과 기사 155건 중에서 어느 곳에서도 연구비 공급처를 밝힌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2006년 들어서는 겨우 3건의 연구 성과 기사가 연구비의 출처를 밝히고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황우석 사태 이후 연구비의 출처를 밝힌 연구 성과 기사를 더 많이 생산할 것이라는 마지막 네 번째 가설 역시 통계적 유의성을 찾을 수 없어 기각됐다.

결론적으로 황우석 사태 이후 언론의 건강보도태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4가지 가설들이 모두 기각된 것이다.

언론이 한국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황우석 사태로부터 사실상 그 어떤 교훈도 얻지 못했다고 풀이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이 황우석 사태 이후, 자기 개선을 위한 철저한 자기반성이나 자기비판은 거의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론은 그간 겨우 이 사태 발생 과정에 기여한 자신의 책임 문제에 대해 일부 자성의 모습만 비쳤을 뿐이었다.

일부(문옥륜, 1992)에서는 언론이 제대로 된 과학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실 있는 전문기자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적, 의학적 지식이 조금 더 풍부하다고 해서 전문기자가 균형 잡힌, 사실성에 기초한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황우석 사태를 통해 입증됐다.

황우석 사태 와중에 각 언론사 마다 과학전문기자, 의학전문기자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과학자 집단의 연구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채로 살살이 걸러 일반인들에게 전달하지 못했다. 도리어 소수 특정 과학자 집단의 이야기를 녹음기처럼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혼란만 더욱 부추겼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내 언론의 전문기자제도의 허점을 여실 없이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황우석 사태 당시 의학전문기자로 있었던 한 기자는 TV토론에 까지 나와서 "진실보다는 국익이 우선이다"라고 외쳤다. 이 때문에 이 기자는 전문 지식을 활용해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결과적으로 국익이란 이름으로 진실을 감추기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이 기자는 신문칼럼을 통해서도 줄기세포 연구는 반만 년 이래 한민족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이며 지금은 윤리적 비판보다 연구진에 대한 격려가 우선이라면서 황 박사팀을 두둔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의학전문기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황우석 사태 당시인 2005년 12월 3일자 기사에서 이 기자는 황 박사팀이 MBC PD수첩의 협박 취재에 시달리느라 일본 오사카 현립대 연구팀에게

선수를 빼앗겼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일본의 관련논문은 황우석 사태와는 관계없었다. 더욱이 PD수첩이 황우석 박사팀을 취재하기 훨씬 전인 이미 2005년 5월 29일에 제출돼 같은 해 8월 22일 게재가 결정됐던 것이었다. 저널리스트로서의 비판의식을 잃을 때 아무리 의학전문기자라도 결과적으로 특정 이해집단의 대변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이 같은 국내 의학전문기자제도의 맹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전문기자가 일반기자에 비해 논문에 근거한 연구 성과 기사를 조금 더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기사 작성자를 알 수 없는 필자 불명과 비교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더욱이 전문기자라고 해서 연구의 한계와 제한점을 지적하는 등 균형감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연구비 출처를 밝히는 문제에 있어서도 전문기자가 일반기자와 별다른 차이 없이 둘 다 소홀하긴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일반기자가 자신의 약점인 전문지식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인지 전문기자보다 관련 전문가에게 해당 연구 성과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크로스체크 과정을 거치는데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기자제도의 실패’라고 까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단지 전문적인 과학지식을 갖췄다고 해서 기자의 사명을 다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재영(1998)은 대중매체에서 들어간 의사 출신 전문기자들이 정확한 의학적 판단을 통해 언론의 허황된 과학보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

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의학전문기자들 조차 데스크의 압력과 요구에 맞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획기적 특종 아이템을 개발하는 데 몰두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는 의사의 사명과 기자의 사명을 모두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홍준(1999)도 의료전문인을 기자로 채용하는 것은 단지 전문성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사기자들이 다른 비전문가 출신에 비해 더 정확한 보도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평가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질병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 등 좁은 의미의 의학지식은 비전문가 기자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건강을 ‘사회적 맥락’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약점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결론적으로 황우석 사태 때 그렇게 곤욕을 치르고도 언론의 의학과 과학 기술에 대한 보도태도는 거의 달라진 게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확인됐듯이 언론은 황우석 사태가 끝난 후에도 이 사태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한 듯 여전히 예전의 문제점을 반복, 재생산하고 있다.

황우석 사태가 제대로 정리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듯하다. 언론이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거듭나지 않으면 황우석 사태 때 보여주었던 언론의 잘못된 모습은 언제든 재발 가능한 상태로 잠복해 있을 뿐이다.

VI. 결 론

이 연구는 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언론의 보도태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언론이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철저한 자기반성을 거쳐 과연 새롭게 태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분석대상은 황우석 사태 전후, 즉 2005년과 2006년 2년 간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 3개 신문사의 건강 면에 실린 연구 성과 기사들이다. 각 언론사 독자서비스센터의 데이터베이스(DB)에 PDF파일로 보관된 전체 기사들 중에서 분석대상 기사들을 수집했다.

3개 신문사를 통틀어 헬스 면에 실린 연구 성과 기사는 2005년 156건, 2006년 155건 등 모두 311건이었다.

분석방법은 내용분석 기법을 사용했다.

황우석 사태 전후의 언론보도 태도 변화 추이를 계량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언론 윤리학자인 미국 미주리 대학 존 메릴(1993) 교수의 이른바 'TUFF' 원칙 항목인 진실성(Truthful), 비 편향성(Unbiased), 충실성(Full), 공정성(Fair) 등의 네 가지 뉴스가치에 근거해 변수를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네 가지 가설, 즉 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언론은 황우석 사태 이전보다 연구 성과 기사를 더 진실 하게(논문에 근거해서), 더 비 편향적으로(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더 공정하게(다른 관련 전문가를 통해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더 충실하게(연구비 출처를 밝히면서) 보도할 것이라는 가설들을 검증했다.

검증결과, 연도별로 모든 가설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모든 가설은 기각됐다.

즉 황우석 사태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음에도 국내 언론은 황우석 사태 이후에도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은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기사화하는 우를 범하고 있었다.

또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크로스체크를 통해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관련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는데도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연구비 출처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국내 언론은 황우석 사태로부터 별다른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인간 사회의 어느 집단에서든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디에나 비리는 있다.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심심찮게 비리가 터져 나오고, 교육계도, 과학계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학문적 양심을 강조해도 기본 사항을 어기는 사람은 어김없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문제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체질 개선을 이뤄내느냐에 달려있다.

황우석 사태는 황 박사가 솔직하게 자신의 연구부정행위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한 과학자의 단순한 과학부정 사건으로 끝날 수 있었다는 게 과학계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하지만 황 박사는 계속 변명과 말 바꾸기로 자신을 변호하면서 진실을 가리려 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언론은 제 역할을 못했다. 시대의 파수꾼은 고사하고 특정인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여과 없이 퍼 나르기에 바빴다.

언론은 게이트키퍼 기능을 통해 사건을 취사선택해서 뉴스로 만든다. 그

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모두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쉽다. 게다가 언론은 막강한 전파력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서 오보의 부작용은 더욱 크다. 뒤늦게 정정 보도를 해도, 원래의 보도만큼 큰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애초부터 '사실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사를 쓰지 않는 게 바람직한 이유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의료보도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연구 역시 다른 연구처럼 한계를 안고 있다.

우선 분석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양한 대중매체 중에서도 신문, 그것도 전국 단위의 중앙지 가운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 3개 신문만을 골라 분석했을 뿐이다.

게다가 그 중에서도 사회 면 등 다른 지면은 빼고 건강의료 면에 실린 연구 성과 기사만을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황우석 사태 이후 전개된 전체 언론의 보도태도변화 흐름을 추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아울러 분석기간이 짧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황우석 사태 이전 1년과 이후 1년 만을 분석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언론보도태도의 변화추이를 관찰하고 측정하는데 조금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언론사 단위가 아닌 기자 개개인 차원에서 황우석 사태가 보도태도에 끼친 영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뉴스생산은 기본적으로 기자가 담당하며, 황우석 사태로부터 어느 정도의 교훈을 얻었는지는 기자 개인별로 체감온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명구. 애국적 열망과 숭고한 과학 진실추구를 억압한 저널리즘.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주최 국제학술대회 Trust and Ethics in the Investigative TV Journalism; 2006.
- 강양구, 김병수, 한재각. 침묵과 열광. 후마니타스 2006.
- 강양구, 김병수. 끝나지 않은 황우석 사태: 남겨진 과제들. 서울대 민교협 주최 공개 토론회 황우석 사태는 무엇을 남겼나; 2007.
- 강상현, 채 백. 대중매체의 이해와 활용. 한나래 2002.
- 김상욱. 건강은 언론 상품이 아니다. 신문과 방송 1996 12: 84-88.
- 김신정, 이은정, 김신동. TV 뉴스에 보도된 건강관련 정보의 건강성과 해독성.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1 12(2): 513-531.
- 김양중.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한국 신문의 보도 태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 서울대 보건대학원 2007.
- 김우룡. 의료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문과 방송 1997 7:84-86.
- 김일순. 우려스러운 생명과학 연구동기. 의료현장 법과 윤리 2007 3:26-28.
- 김은정. 국내 주요 일간지 건강 면에 실린 건강 의료기사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한국: 경성대 정책정보대학원 1990.
- 김지미. 주요 일간지의 건강관련기사 내용분석[석사학위논문]. 한국: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86.
- 김환석. 황우석 사태의 정치적 함의. 황우석 사태와 한국사회. 나남출판 2006.
- 김환석. 과학사기는 왜 일어나는가. 서울대 민교협 주최 공개 토론회 황우

- 석 사태는 무엇을 남겼나; 2007.
- 김희원. 불확실성 사건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 전략: 황우석 사건 보도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한국: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 협동과정 2006.
- 권혁남. 지면에 나타난 보건기사의 특성과 개선방안. 신문연구 1992 33(2): 97-108.
- 대한의학회. 국내 일간지에 게재된 보건의료정보의 적절성 평가연구. 대한 의사협회 1997.
- 문옥륜. 건강관련 보도 전문인 양성과 교육의 문제점. 신문연구 1992 33(2): 109-117.
- 박건식. '기적'파는 보도 뒤에 숨어있는 막강 로비. 신문과 방송 2007 3: 24-27.
- 박재영. 상업주의적 접근에 환자들만 괴로워-최근 의료관련 보도를 보고. 신문과 방송 1998:331 67-71.
- 우석균. TV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내용분석[석사학위논문]. 한국: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 우희종. 늑대 복제로 복제된 황우석 사태-우리 안의 황우석 시물라크르. 서울대 민교협 주최 공개 토론회 황우석 사태는 무엇을 남겼나; 2007.
- 유승흠. 보건학 연구방법과 논문쓰기. 계축문화사 2005.
- 유용하. 보건의료 기사의 뉴스가치와 현저성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한국: 고려대학교 대학원 과학학협동과정; 2001.
- 유은광, 이성은, 김명희. 3개 주요 월간 여성잡지에 나타난 건강관련 기사 내용분석.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98 12: 309-321.
- 유재천, 이민웅. 정보와 언론. 나남출판 1994.
- 윤호진. 황우석 사태 1년, TV 과학 프로그램의 현주소. 신문과 방송 2006 11:

117-121.

- 이경화. 연구개발성과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한국: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광고홍보전공 2004.
- 이동수. 일간신문 만성병 관련기사의 적절성 연구[석사학위논문]. 한국: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 이성주. 황우석의 나라. 바다출판사 2006.
- 이영희. 황우석 사태와 과학기술정책. 황우석 사태와 한국사회. 나남출판 2006.
- 이형기.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제언. 의료현장 법과 윤리 2007 3:10-15
- 장행훈. '황우석 충격'은 언론의 책임-황우석 사건과 언론보도 문제. 신문과 방송 2006 1: 44-49.
- 전규찬. 공통이익 보호, 민주언론 책임의 실패: 황우석 사태를 통해 본 한국 저널리즘의 한계. 황우석 사태와 한국사회. 나남출판 2006.
- 조흥준. 의료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훈저널 1999:39(1) 213-223.
- 진중권. 사이버 파시즘으로 언론자유 위협. 신문과 방송 2006 1: 37-39.
- 최영재. 영웅화, 신화화, 선정적 국익주의. 신문과 방송 2006 1: 23-27.
- 한국과학기자협회. 무료신문의 건강 의료관련 보도 실태조사. 대한의사협회 2004.
- 한국과학기자협회. 과학기술정책과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한 언론보도 및 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부 1995.
- 한국과학기자협회. 과학기술의 진흥과 문화 창출을 위한 새로운 記事 모델 개발의 조사 연구-중앙일간지, 공중과 방송의 보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부 2002.
- 한국언론재단. 공중보건과 의학보도: 의학보도의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한

- 국언론재단 2001.
- 한국언론재단. 2006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제13회 미디어의 영향과 신뢰도 조사. 한국언론재단 2006.
- 홍기선. 현대 사회변동과 마스크. 나남출판 1988.
- Arthur J.Barsky M.D., Emily C.Deans M.D., 정나리아 역, 통증으로부터의 해방. 용오름 2007.
- Hotham NJ. Information on drug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in pregnancy in popular magazines. Medicine Journal of Australia 1995 162(8):417-420.
- Lisberg E. Tell the World. World Health Forum 1993 14:267-274.
- Marcia Angell, M.D., 강병철 역, 제약회사들은 어떻게 우리 주머니를 털었나. 청년의사 2007.
- Merrill. John. C. Professional reporting vs. journalistic ethics: A fundamental quandary in journalism 1999. 고려대 언론대학원 (편). 매스 미디어와 미래사회. 제1차 국제회의 학술논문집.
- Berger P., T. Luckmann. The Social Constitution of Reality: Treaties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T.: Doubleday; 1996.
- Karpf A. Medicine and the Media. BMJ 1988 296:1389-1390.
- Tankard WT, Ryan M. NewsSource Perception of Accuracy of science Coverage. Journalism Quarterly 1974 51:215-219.
- Tuchman G. Making News: A Study in construction of reality 1978, 박홍수 역, 메이킹 뉴스: 현대사회와 현실의 재구성 연구. 나남출판 1995.

<부록1> 기사내용 분석표

분 석 표

기사코드(일련번호 및 기사제목)

m1. 신문이름:

1) 조선일보 2)중앙일보 3)한겨레신문

m2. 게재 년도:

m3. 게재 월:

m4. 게재 일:

기사와 관련한 기본사항

m5. 기사형태:

1)스트레이트 2)기획취재 3)해설 4)특집연재기사(심층취재) 5)단신
6)의학칼럼(내부/외부 전문가) 7)인터뷰 8)독자투고 9)기타

m6. 기사분량(몇 단 기사인지):

1)1단 2)2단 3)3단 4)4단 5)기타(5단 이상)

m7. 기사작성자:

1)의학전문기자 2)일반기자 3)분야전문가 4)기타(작성자 불명)

m8. 기사내용(대 분류):

1)치료법(수술법 등) 2)의약품(치료약물 등) 3)건강기능식품. 영양
4)의료기기 5)보건행태(음주, 흡연, 약물남용, 성형, 다이어트 등)
6)기타(설문조사 결과, 병원방문 환자 분석결과 등)

m9. 기사내용의 세부분야(세부분류)

- 1)내과 2)신경과 3)정신과 4)외과 5)정형외과 6)신경외과
- 7)흉부외과 8)성형외과 9)마취통증의학과 10)산부인과 11)소아과
- 12)안과 13)이비인후과 14)피부과 15)비뇨기과 16)영상의학과(진단방사선과)
- 17)방사선종양학과 18)병리과 19)진단검사의학과 20)재활의학과
- 21)결핵과 22)가정의학과 23)핵의학과 24)산업의학과 25)응급의학과
- 26)예방의학과 27)치과 28)한의학 29)의약품
- 30)기초의학(기생충학, 미생물학, 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등)
- 31)식품영양학 32)의료법윤리학 33)의료정책 34)의료공학 35)기타

기사내용의 질적 특성

다음 문항들은 해당기사가 얼마나 검증을 거쳐 작성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과학적 사실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m10. 학술지나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는지 여부:

- 1)그렇다 2)아니다

m11. 기사에 해당 연구의 한계가 지적돼 있는지 여부:

- 1)있다 2)없다

m12. 해당 연구에 대해 관련 전문가에게 크로스체크를 했는지 여부:

- 1)했다 2)하지 않았다

m13. 연구용역 발주처나 연구비 출처를 밝혔는지 여부:

- 1)밝혔다 2)밝히지 않았다

<부록2> 연구 성과 기사의 유형

1. 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한계를 지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의 크로스체크를 거치지 않았으며, 연구비 출처도 밝히지 않은 기사유형.

복강경으로 식도암 수술 새 치료법 국내 첫 소개(중앙일보 2006년 4월 5일자)

식도암을 흉강경과 복강경으로 수술하는 새로운 치료법이 국내 처음 소개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전상훈(흉부외과), 김형호(외과) 교수팀은 지난해 4-8월 암 초기 및 폐기능이 나쁜 식도암 환자 8명에게 흉강경과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한 결과 폐렴과 같은 부작용이 전혀 없이 회복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식도는 목, 가슴, 배의 세 영역에 걸쳐 있는 데다 기도, 심장, 대동맥, 폐 등 중요 장기에 둘러싸여 다른 암에 비해 내시경 수술이 어려웠다. 기존 식도암 수술은 식도를 절개하고, 위장을 이용해 식도를 재건하는 방식.

가슴과 배, 때로는 목까지 절개하고, 절개 길이는 각각 25-30cm 에 이른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수술 후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고생해야 했다. 20%에서 호흡기 합병증이 나타나고, 폐기능이 나쁜 환자는 수술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술팀은 흉부와 복부에 4-6개의 투관침(5-10mm)을 집어넣어 암조직을 꺼냈다. 이어 흉부와 목에 3-5cm 의 피부를 절개한 뒤 식도를 재건했다.

전 교수는 "식도암 수술은 흉부와 복부, 목까지 동시 절개함으로써 폐합병증의 위험이 컸다"며 "이 수술로 고위험군 환자도 수술할 수 있는 계기

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2. 논문에 근거한 기사유형

비만인, 고혈압 위험 정상인의 3배(한겨레신문 2005년 4월 27일자)

비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혈압 발생 가능성이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김영식 교수팀은 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 검진을 받은 2543명을 평균 6년2개월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가 27 이상인 사람은 정상보다 3배 가량 고혈압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고 26일 밝혔다.

성별로는 비만한 여성이 3.2배, 남성이 2.5배로 여성이 비만과 고혈압의 관련성이 더 큰 것으로 나왔다. 남성의 경우에는 비만과 함께 음주도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하루 평균 30g(소주 2잔 가량)의 알코올을 마시는 남성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고혈압 발생 위험도가 2.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고혈압 위험도는 나이가 5살 늘어날 때마다 남성은 1.5배, 여성은 1.3배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비만과 고혈압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기 위해 나이, 흡연, 콜레스테롤 수치, 가족력 등을 모두 감안했다"며 "고혈압을 막으려면 비만을 예방해야 하고, 알코올 섭취량도 술의 종류에 관계없이 하루 두 잔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오랜 기간 추적 조사로 고혈압과 비만, 음주의

관련성을 밝힌 점이 인정돼 <대한의과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3. 크로스체크를 거친 기사유형

척추 수술 후유증 '라즈카테터'로 통증완화(조선일보 2006년 10월 25일자)

척추 수술 후의 극심한 통증을 20분간의 시술로 줄여주는 새 치료법이 국내에 소개됐다.

아주대병원 신경통증클리닉 김 찬 교수와 세연통증클리닉 최봉춘 원장은 최근 열린 대한척추통증학회에서 얇은 관모양의 '라즈카테터'를 이용해 국소 마취제 등을 주입, 척추 신경근의 통증 부위를 떼어내는 신경성형술을 공동으로 선보였다.

이로써 척추수술 환자의 10-25%에게 나타나는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 환자가 큰 도움을 받게 됐다.

라즈카테터는 미국 텍사스 테크 대학 가보 벨라 라즈 교수가 고안한 지름 약 2mm, 길이 약 40-50cm 의 제품으로 척추뿐 아니라 허리, 목, 하지 어깨, 등 깊숙한 곳의 통증 치료에도 이용될 수 있다. 이 치료법은 지금까지 척추수술 후 통증 환자에게 사용되던 '경막외전기자극술'에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부분 마취만으로 치료해 당일 귀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서울아산병원 통증의학과 이상철 교수는 "척추수술 후 통증을 겪는 환자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제까지 나온 치료법 중 가장 진일보한 방법이지만 이 방법만으로 모든 환자의 통증이 완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4. 논문에 근거하고 연구비 출처를 밝힌 기사유형

불임남성, 시금치 땅콩 먹으면 도움(한겨레신문 2006년 8월 2일자)

불임 남성들은 '엽산'대사에 관계하는 유전자의 염기서열(단일염기다형성, SNP)이 일반 남성과 달라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엽산은 미량이지만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의 하나로 시금치와 같은 푸른 채소와 내장, 알, 곡류, 땅콩 등과 같은 식품에 많이 들어 있다.

포천중문의대 차병원 생식의학 및 불임유전체센터의 이수만 교수팀은 엽산 대사와 관련된 3개 유전자의 단일염기다형성의 차이와 남성 불임이 연관성이 있음을 규명해 유럽생식발생학회지 <인간생식> 최신호 온라인 판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원인불명의 남성 불임 환자 360명과 정상인 남성 325명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엽산 대사에 관여하는 3개의 유전자(MTHFR, MS, MTRR)의 단일염기다형성 차이에서 남성 불임의 원인을 처음 발견했다.

특히 MS 유전자의 경우 2756번째 염기서열이 구아닌구아닌(GG)일 경우 아데닌아데닌(AA)인 사람보다 무정자증일 확률이 무려 약 5배 높았다. MTRR 유전자는 66번째 염기서열이 GG 일 경우 AA 보다 희소 정자증 확률이 약 3배 높게 나타났다.

이수만 교수는 "현재 불임 부부는 국내에서도 계속 증가 추세이며 이 중 남성 불임이 대략 절반을 차지한다."며 "이번 연구는 엽산 대사 관련 유전자들의 염기서열 차이가 정자 형성 및 기능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혀

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약한 엽산 대사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적당량의 엽산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엽산은 과거부터 태아의 신경계통을 형성하고 기형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5. 논문에 근거하고 한계를 지적한 기사 유형

50살부터 10년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한겨레신문 2005년 4월 27일자)

50살부터 10년에 한 번씩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현재 대장암 검진 방법보다 생명 연장 효과도 있으면서 비용도 절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적으로 볼 때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당장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조기 발견으로 오히려 치료비용은 줄이면서 생명 연장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립암센터 삶의질향상연구과 박상민 주임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와 기존 대장암 관련 연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10년에 한 번씩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아예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보다 50살 이상 성인 1인당 10일 정도 생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동시에 생명을 1년 연장할 때 드는 비용도 184만 원가량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1년에 한 번씩 분변잠혈 검사를 하는 대장암 관리 전략은 암 검진을 받지 않는 것보다 생명 연장은 6일 정도지만, 반면 1년 생명 연장 비용은 101만원이 추가로 드는 것으로 나왔다. 분변잠혈 검사 뒤 이차적인 검사를 하는 방법은 현재 국가의 5대 암 검진프로그램 중에 대장암 검진 방

법이다.

박 연구원은 "50살 이상에서 10년 간격 대장내시경 검사가 현재 대장암 검진 방법보다 비용 절감, 생명 연장 효과가 더 뛰어나다"며 "앞으로 이 방법이 성공하려면 대장내시경 보급 및 관련 수가의 적절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소화기학회지> 최근에 실렸다.

6. 학술대회 발표 자료에 근거하고 크로스체크를 거친 기사유형

‘성장호르몬’ 동맥경화도 치료(조선일보 2005년 6월22일자)

성장호르몬을 꾸준히 맞으면, 기름기가 잔뜩 끼서 두꺼워진 혈관벽도 다시 얇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희의료원 내분비내과 김성운 교수팀은 50세 이상 성인 7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성장호르몬을 투여한 결과, 동맥경화의 지표가 되는 목동맥혈관벽 두께가 감소했다고 최근 미국 내분비학회에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참가자에게 취침 전에 성장호르몬 1단위를 주 6회씩 1년에 걸쳐 투여하고 초음파를 이용해 목동맥 내중막(혈관벽을 형성하는 막)의 두께를 측정했다.

그 결과 특히 60세 이상 남성 13명은 평균 1.05mm 이었던 내중막 두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중막 두께는 0.8mm 이하면 정상, 1.0mm 이상이면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다.

목동맥의 내중막은 성장호르몬 결핍증, 당뇨, 고혈압, 비만 환자와 흡연자에게서 두껍게 나타나는데, 이 때문에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는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정상인에 비해 2배 정도 높다.

김 교수는 "성장호르몬은 다양한 항노화 효과가 있는 데다 혈관벽을 원상 복구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니, 노년 건강 관리법으로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촌세브란 소아과 김덕희 교수는 "성장호르몬 결핍 환자에게 성장호르몬을 투여하면 지질대사가 활성화되면서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감소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이라며 "굳이 정상인이 값비싼 성장호르몬을 맞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7. 한계를 지적한 기사유형

임플란트를 1시간 만에 끝내(중앙일보 2006년 12월 4일자)

일러야 이틀,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리는 임플란트 시술을 한 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대학병원과 일부 개원가에 들어와 임상 적용되고 있다.

최근 삼성서울병원 치과진료부(이동환, 홍종락 교수)는 컴퓨터상으로 모의수술을 하고 정밀유도장치를 통해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3차원 CT이용 첨단 임플란트'시술법을 도입, 성공적으로 시술했다고 소개했다.

또 개원강선 임플란트 전문 신치과(원장 신태운)가 한 시간 내에 치아를 심고 음식을 씹을 수 있는 노벨가이드라는 임플란트 기법을 들여와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법의 특징은 3차원 입체영상을 얻어 시술 전 잇몸 절개 없이 이상

적인 매식자리를 찾아준다는 점. 우선 시술 전 3차원 CT를 촬영해 뼈와 잇몸, 그리고 보철물의 모양을 입체적으로 컴퓨터로 재현한다.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설정된 위치에 드릴과 임플란트 유도장치를 이용해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다.

홍 교수는 "가장 큰 장점은 절개를 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라며 "특히 일반적인 보철 술식 과정이 생략돼 치료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환자는 한 시간 이내에 수술부터 보철물 장착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술대상자는 한정된다. 가장 효과를 보는 사람은 치아가 거의 없는 환자들이다.

신 원장은 "무치악 또는 고혈압, 당뇨병이 있어 장시간 시술이 힘든 환자에게 적용한다."며 "잇몸 뼈가 부실하거나 젊은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시술법은 2005년 말 유럽과 미국에서 처음 시행됐고, 아시아에선 우리나라가 홍콩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다.

<부록3> 한국과학기자협회 '과학보도 윤리선언문'

한국과학기자협회는 2005년 12월 30일 연세대 알렌관에서 연 '2005 과학 언론인의 밤' 행사에서 '과학보도 윤리선언'을 채택, 발표했다.

과학기자협회는 황우석 사태를 계기를 '과학보도에 임하는 기본자세' 8가지를 내놓고 이를 따르기로 했다.

과학보도에 임하는 기본자세

1. 인간배아 복제 줄기세포 연구 등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과학기술 연구의 성과물은 한국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인식 아래 최대한 신중하게 보도한다.
2. 새로운 과학적 발견 및 발명에 관한 취재 및 보도는 연구팀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의 발언에만 의존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국내외 관련 전문가의 견해를 반드시 확인한다.
3.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취재 및 보도는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토대로 하여 자칫 왜곡, 과장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과학적 사실에 관한 취재 및 보도를 함에 있어 결과를 함부로 예단하지 않는 것은 물론 추측보도를 자제한다.

5. 우리나라 과학연구 문화 및 윤리 수준이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난자 파문'을 계기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이바지한다.
6. 〈사이언스〉, 〈네이처〉 등 국제 과학저널의 엠바고(보도제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존중한다.
7. 과학적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라는 표현을 삼가고 그것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를 고려한다.
8. 우리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의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는 그런 지식들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단편적, 과학적 사건을 보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부록4> '과학기술인 윤리강령'

과학기술인이 보편적으로 준수해야 할 포괄적인 윤리규범을 담은 '과학기술인 윤리강령'이 만들어졌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유네스코(UNESCO) 한국위원회 등 4개 단체는 공동으로 과학기술인 윤리강령을 제정, 2007년 4월 20일 서울 하월곡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잔디광장 열린 제40회 과학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선포했다

과학기술계 대표단체들이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연구윤리 공통규범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과학기술부가 2007년 2월부터 시행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대상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으로 국한시키고 있었다.

과총 문유현 사무총장은 "과총 등 4개 단체는 2005년 말 발생한 줄기세포 연구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과학기술계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 지난해 12월 말 통일된 안을 제정기로 합의하고 윤리강령특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4개월간의 검토와 토의 과정을 거쳐 윤리강령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리강령은 연구 및 지적 활동에 있어 과학기술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자세, 사회적 책임 및 진실성 존중,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연구대상의 존중 등에 대해 전문과 본문 1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대외적인 강제성을 띠진 않지만 각 연구기관은 이 윤리강령을 토대로 기관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윤리규정이나 지침을 마련, 시행하게 된다.

문 총장은 "이번 윤리강령 선포는 줄기세포 연구 논문조작 사건에 이어 최근 늑대복제 논문의혹 사건 등으로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과학기술계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연구 윤리 정립 노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과학기술인 윤리강령 요지.

<전문> 과학기술은 인류가 공유하여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인류 문명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여 왔다. 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특권을 가질 뿐 아니라 그 책임 또한 크다. 따라서 과학기술인은 연구 및 지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실성과 정직성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치열해가는 경쟁 풍토, 과학기술연구의 산업과의 연계로 인한 이해상충의 증가, 사회나 정치권의 불합리한 학문연구 개입 등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는 진실성과 정직성을 지켜야 할 과학기술인들로 하여금 그 품위를 유지하는 데 과중한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과학기술인은 진실하고 보편적인 행동규범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는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인이 지켜야 할 보편적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과학기술인이 자율적으로 이를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며, 스스로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1.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 = 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전문직 종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 활동

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이 인간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2. 과학기술인의 기본 연구윤리 = 과학기술인은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integrity)과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추구한다. 특히, 날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3. 보편성의 원칙= 과학기술인은 인종, 성, 종교, 교육 배경 등으로 차별 받을 수 없으며,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4.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품위유지 = 과학기술인은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5. 법령의 준수 = 과학기술인은 연구 및 지적 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6. 연구대상의 존중= 과학적 연구대상이 인간인 경우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생명윤리에 부합해야 하며, 동물인 경우 생명의 존엄성에 유의한다. 자연환경을 다룰 때에는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의식함으로써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7. 연구 자료의 기록. 보존 = 과학기술인은 연구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의 자료를 처음 단계에서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8. 저자표시와 지식재산권 = 저자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

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9. 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 과학기술인은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 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10.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에 대한 대처 = 과학기술인은 연구 및 지적 활동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공표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한다.
11. 연구 환경 조성 = 과학기술인은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 자유, 공정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
12. 윤리교육의 실시 = 연구와 지적 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 강령의 제 규범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부록 5> 조사대상 기사 목록

날짜	신문사	기사제목
2005.01.12	조선	지방간이면 당뇨조심(술 안 먹고 비만도 아닌데)
2005.01.19	조선	심장마비 겨울이 여름보다 2배
2005.01.19	조선	세계! 불황 때 칫솔질
2005.01.26	조선	우울증, 뇌졸중, 암 걸린 노인환자에 많다
2005.01.26	조선	작게 다친 사람이 더 많이 수술 받는다
2005.02.16	조선	제3세대 유방암 치료제 '페마라' 재발, 원격 전이 위험 크게 낮춰
2005.02.16	조선	레이노드증후군 수술로 치료한다.
2005.02.23	조선	아침 먹는 아이 역시 '뚱뚱'
2005.02.23	조선	한 모금만 빨아도 혈압 상승
2005.03.02	조선	폐구균 항생제 내성 70~90%
2005.03.09	조선	우울증, 강박장애 수술로 고친다
2005.03.30	조선	인종 따라 치아 배열 모양 달라
2005.03.30	조선	ADHD 어린이 환자 7% 다른 정신질환 있다
2005.03.30	조선	표적 항암제 '이레사' 한국인에 효과
2005.04.06	조선	국내 건선환자 25%가 가족력
2005.04.13	조선	대장암 환자 절반 "아무 증상 없었는데"
2005.04.13	조선	남자가 담석증 더 위험
2005.04.20	조선	암을 열려 죽인다. 암이 암을 죽인다
2005.04.20	조선	어린이 천식 크게 늘어
2005.04.27	조선	피부 지키려다...뺏속 텅텅 빈다
2005.05.04	조선	시골사람 파킨슨병 '조심'-걸릴 확률 도시사람의 10배
2005.05.11	조선	에취~걸렸다 하면 비타민C-효과는 글썄?
2005.05.11	조선	군 사격시 귀마개 착용 의무화해야
2005.05.11	조선	오랜 시간 운동할 때 수분 과다섭취 위험
2005.05.25	조선	노년층 골절환자 급증
2005.05.25	조선	검사 필요한 신생아, 기준 높여야

2005.06.08	조선	"뇌경색, 줄기세포 이식하면 후유증 최소화"
2005.06.22	조선	바르는 남성 호르몬제 갱년기 증상 개선시켜
2005.06.22	조선	'성장호르몬' 동맥경화도 치료
2005.07.06	조선	바나나 먹고 다이어트
2005.07.20	조선	임산부 10명중 1명꼴 조산
2005.08.17	조선	말기 갑상선암도 완치 된다
2005.08.17	조선	야간 근무자, 고지혈증 위험 높다
2005.09.07	조선	젊은 심근경색 환자 늘어
2005.09.07	조선	인공혈액 수혈 눈앞에
2005.09.07	조선	파킨슨병에 전기 자극 효과 뛰어나
2005.09.21	조선	알코올 중독환자 자영업. 주부 많아
2005.10.05	조선	초. 중고생 약 5만 명 신장에 문제 있다
2005.10.19	조선	당뇨환자도 심장병 수술 문제없다
2005.11.02	조선	레이저. 칩 동시 시술로 흉터 말끔히 '멀티 홀 치료법'
2005.11.02	조선	체중 5~15% 줄이면 대사증후군 위험 50% 감소
2005.11.02	조선	저체중 신생아 대사증후군(당뇨. 심장질환 등 성인병원인)발 병확률 높아
2005.11.16	조선	유방 절제. 재건 성형술 동시에 해결해도 안심
2005.11.16	조선	장신구 알레르기(잘 낫지 않는 만성습진환자)는 녹차(니켈이 들어있는)도 멀리하라
2005.11.16	조선	아빠 나이 들어 낳은 딸 발암 확률 높아
2005.11.16	조선	눈 속의 점, 지울 수 있어요 '오타모반 공막성형수술
2005.11.16	조선	부부는 병까지(대사증후군)뺀다
2005.11.16	조선	실컷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다 '포만감 지수 다이어트'
2005.11.30	조선	근육 손상 적은 인공 고관절 시술법 개발 전남대 윤택림 교 수 미국특허
2005.11.30	조선	태반주사, 퇴행성 무릎관절에 효과
2005.11.30	조선	노인 10명중 6명, 처진 눈 수술해야
2005.11.30	조선	당화혈색소, 당뇨관리에 혈당보다 중요. 대한당뇨학회, 당뇨 새 진단. 치료 기준 발표

2005.12.07	조선	테니스 엘보' 자기 피 주사해 치료
2005.12.21	조선	피 검사로 위암도 찾아낸다
2005.12.28	조선	우울증이라더니...알고 보니 조울증
2006.01.11	조선	위장관 염증 '크론병' 환자 8년 만에 10배 늘어
2006.01.11	조선	생약성분 아토피 치료제 개발
2006.01.18	조선	고지혈증, 음식 운동만으로 10명중 4명 치료
2006.01.18	조선	때, 장소 거르지 않는 잠. 국내 기면증 환자 약 4만5천 명
2006.01.18	조선	입천장 임플란트 삼입 통증 없이 코골이 치료
2006.01.25	조선	뼈 자르지 않고 '척추관 협착증' 수술한다
2006.02.15	조선	위점막 밑 종양도 내시경으로 제거한다
2006.02.22	조선	변비, 수술로 치료한다.
2006.03.08	조선	전립선암, 폐암, 한 쌍으로 잡는다
2006.03.15	조선	다리가 근질근질 '잠 못 이루는 밤'
2006.04.05	조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률 40~50%
2006.04.26	조선	더 나은 섹스의 비결' 보고서 고객숙인 남성이여, 심장을 관리하자
2006.04.26	조선	한방. 운동 같이하면 내장지방 치료 효과 커
2006.05.03	조선	스님들은 어떤 병을 앓고 있을까
2006.05.03	조선	위암환자는 대장암도 잘 걸린다
2006.05.03	조선	10대. 20대 우울 증세는 조울병 확률 높아
2006.05.03	조선	"암 백신, 자궁경부암 80% 예방"
2006.05.17	조선	혹시 자주 불안하세요? (4명중 1명 불안 상태)
2006.05.17	조선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수술 효과-안전성 세계가 인증"
2006.05.17	조선	한국 여성 60% 자기 피부타입 잘 몰라(전문 측정 없이 육안으로 판별하기 때문)
2006.05.24	조선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하면 키 크다
2006.05.24	조선	우울증 환자, 정신과 가는데 4년 걸려
2006.06.07	조선	뱃살 많은 여자, 뇌졸중 더 잘 걸려
2006.06.07	조선	성인병, 농촌사람에게 더 많다
2006.06.07	조선	초음파 지방흡입술 도입

2006.06.21	조선	중증 척추 변형, 교정할 수 있다
2006.07.05	조선	요로결석 환자, 여름철에 가장 많다
2006.07.19	조선	암환자 10명중 2명 영양실조 사망
2006.08.02	조선	남성 불임엔 시금치. 땅콩이...
2006.08.02	조선	직장인들 속 쓰린 이유 있다(70%가 15분 안에 식사 끝)
2006.08.02	조선	2명중 1명이 산후조리 후유증
2006.08.30	조선	어깨 통증? 모두 오십견은 아닙니다
2006.08.30	조선	성인 28% 불면증으로 고통
2006.09.06	조선	우리나라 여성 날씬해져
2006.09.06	조선	전립선암 환자, 평균 9.5개월 자각증상 방치
2006.09.13	조선	40-50대 백내장 수술 증가
2006.09.13	조선	습관성 유산 일으키는 단백질 5개 발견
2006.09.13	조선	초등생 100명중 5명 턱 장애
2006.09.27	조선	어린이 두통은 원인질환 없는 '1차 두통'
2006.09.27	조선	영국 옥스퍼드대 홀만 교수 "당뇨병 약으로 예방할 수 있다"
2006.10.25	조선	마라톤해도 무릎연골 손상 거의 없어
2006.10.25	조선	척추 수술 후유증 '라즈카데터'로 통증완화
2006.10.25	조선	어린이 화상, 정수기. 러닝머신이 주범
2006.11.08	조선	청국장. 녹차도 '독'이 될 수 있다
2006.11.08	조선	골다공증 환자 10명중 7명 골밀도 검진 받은 적 없어
2006.11.08	조선	당뇨환자 12% '1.5형...치료법 달라야
2006.11.08	조선	담배 끊으면 정력 떨어진다
2006.11.15	조선	당뇨환자 10명중 4명이 합병증
2006.11.15	조선	두통에 눈이 빠근...혹시 녹내장?
2006.11.15	조선	깜빡깜빡 건망증 뇌경색 의심해야
2006.11.29	조선	김 기사님, 눈 관리 하셔야겠어요
2006.11.29	조선	뇌출혈, 새벽 아닌 저녁때 주로 발생
2006.11.29	조선	당뇨+신부전증은 암보다 무섭다
2006.12.06	조선	배란유도 없는 시험관 아기 시술법 개발

2006.12.06	조선	비만, 폭식보다 야식이 더 위험하다
2006.12.06	조선	어느 당뇨환자의 아침 병신 대신 인터넷 접속...
2006.12.13	조선	한국 아토피환자에게만 영향 미치는 유전자 있어
2006.12.13	조선	노안. 백내장 동시 수술법 국내 도입
2006.12.20	조선	코 많이 골면 고혈압. 당뇨 생긴다
2006.12.20	조선	시력 보존하는 새 안암 치료법 국내도입
2005.01.26	중앙	'빼끗한 어깨' 방지하면 큰 병 돼-만성되면 수술도 어려워
2005.01.31	중앙	난치성 요도협착 환자에 새빛-대장 떼어 내 요도 만들어
2005.02.14	중앙	혈관 수축해 손 썩는 질환 새 치료법 나와
2005.02.23	중앙	탈모에 레이저로 치료
2005.03.09	중앙	대변 조절 못하는 변실금 괄약근 조절신경 자극술 도입
2005.03.09	중앙	방사선 쏘 뇌세포 일부 제거 우울증 정신질환 치료
2005.04.11	중앙	노인 척추 수술 "걱정 마세요"
2005.04.25	중앙	모공 승승? 양극성 고주파 쏘 치료
2005.04.25	중앙	렌즈 끼면 눈 뻑뻑? 걱정 마세요
2005.05.02	중앙	인삼 효능 ↑ 사포닌 분해물 함유 발효인삼 개발
2005.05.02	중앙	탈장, 꿰매지 않고 수술한다
2005.05.16	중앙	보톡스, 전립선 주름도 펴나
2005.05.23	중앙	백내장. 노안 동시 해결 원근 조정수술법 나와
2005.05.30	중앙	유산균, 간에도 좋다 - 술, 담배 독소 분해 밝혀져
2005.06.01	중앙	화상 흉터치료 포기하지 마세요 구멍 뚫어 재생유도
2005.06.08	중앙	위 속에 풍선 삽입 안 먹어도 배부르네
2005.06.13	중앙	코 막힘 치료 뒤 성장 쑥쑥
2005.06.13	중앙	난치성 측두엽 간질, 수술로 효과
2005.06.22	중앙	이것이 4대 불량 '앉은 자세'
2005.06.29	중앙	턱 보톡스 치료 4개월째 가장 효과
2005.06.29	중앙	척추관 협착증에 인공디스크 도움
2005.07.13	중앙	청춘의 꽃이여, 안녕
2005.07.20	중앙	맘 놓고 웃는 게 소원이라고? 부작용 적은 요실금 수술법 나와

2005.08.10	중앙	폐경 여성 20% 불면증 괴롭다
2005.08.31	중앙	ASA80 노안수술' 도입...정확도 높아 빠르게 확산
2005.10.05	중앙	약방의 감초 항암제로도?
2005.10.26	중앙	목 디스크, 인공물 삽입술 인기
2005.10.31	중앙	갑상선 기능 저하증
2005.11.02	중앙	코막힘 어린이 50%가 저성장
2005.11.02	중앙	중국의 항암 한약제
2005.11.02	중앙	말기암 환자의 생존기간 늘린다
2005.11.07	중앙	한약제 추출 물질 관절에 효험
2005.11.09	중앙	클린턴. 우즈가 한다는 존 다이어트는?
2005.11.14	중앙	불임원임 정계정맥류. 탈장, 복강경으로 동시 수술
2005.11.28	중앙	코골이, 수술 않고 치료 임플란트 시술법 국내 첫선
2005.12.14	중앙	소장 이식수술 소아도 성공
2005.12.14	중앙	손목 혈관 이용해 관상동맥 수술
2005.12.19	중앙	식도암 수술성적 10년 새 크게 좋아졌다(5년 생존율 20%→47%)
2005.12.21	중앙	디스크 탈출증 환자에 무중력 감압 치료 효과
2005.12.21	중앙	스피루리나, 당뇨에 효험
2005.12.26	중앙	감기, 바이러스 따라 맞춤처방 가능
2006.01.11	중앙	고지혈증 환자 35%, 식사-운동만 잘해도 회복
2006.03.06	중앙	간염 재발 낮추는 치료법 선보여
2006.03.20	중앙	흉터에 잔구멍 '핀홀요법' 화상 치료에 효과 좋아
2006.03.20	중앙	하지불안증후군 52%
2006.03.27	중앙	수면, 물 섭취 모자라고, 세안까지 여러 번 짹짹 여드름이 확~
2006.03.29	중앙	두경부암 치료기간 줄인 방사선 치료
2006.04.03	중앙	대장내시경 검사자 42% "용종 발견"
2006.04.05	중앙	복강경으로 식도암 수술 새 치료법 국내 첫 소개
2006.04.10	중앙	코골이 심하면 성기능 뚝~

2006.04.17	중양	콩팥 고치자니 키 안 커 걱정! 부작용 줄인 새 치료법 선보여
2006.04.24	중양	CT. 물방울레이저로 임플란트 시술 거뜬하네
2006.04.26	중양	술을 사랑하는 당신 채장은 안녕하신지...
2006.05.01	중양	수술대신 초음파로 암 치료 하이프 나이트 간암 등에 효과
2006.05.08	중양	성대 레이저 수술법 나와
2006.05.08	중양	위암환자는 대장암 위험 2.5배
2006.05.08	중양	비만하면 인공수정 성공률도 똑
2006.05.15	중양	로봇이 의사보다 전립선암 수술 잘한다?
2006.05.24	중양	전립선암, 고강도 초음파집속술로 치료...발기부전. 요실금 등 부작용 없어
2006.06.05	중양	군살을 썩- 수술 않고 초음파로 몸속 지방세포 분해시켜
2006.06.05	중양	허리를 짹~
2006.06.05	중양	노인 요통 땀 빼에 금 갔나 정밀 검사를
2006.06.07	중양	동양 여성 맞춤 인공관절 나와
2006.07.17	중양	잘 먹어야 암도 물리친다(암환자 63% 영양실조 20%는 사망까지도)
2006.07.26	중양	대장암 증상 있건 없건 발병률 비슷(정기검사 받아야)
2006.08.02	중양	엽산 유전자에 문제 있으면 남성 불임 가능성
2006.08.28	중양	헬스. 골프할 때 어깨 조심 근육 찢어지는 회전근개 환자 급증
2006.09.11	중양	두개골-안면골 기형 환자에 확장술 국내 첫 성공
2006.09.11	중양	치아 임플란트 1시간 만에 똑딱 시술법 나와
2006.09.20	중양	당뇨, 발병 10년 지나야 증상 나타나
2006.09.25	중양	실리콘 젤 시트하나만 붙이면 흉터 걱정 뚫!
2006.09.27	중양	세종병원 황홍곤 박사 새 심혈관중재술 개발
2006.10.23	중양	천연 항생제 프로폴리스 '국산이 짱'
2006.11.01	중양	내시경 검사 늘자 대장 용종 크기 줄어
2006.11.01	중양	부분 마취로 척추수술 안전하게
2006.11.06	중양	지방의 역설

2006.11.08	중앙	아픈 부위 아니라 '혈'에 침 꽂아 효과
2006.11.08	중앙	'1.5형 당뇨병'도 있다
2006.11.13	중앙	척추 수술법
2006.12.04	중앙	"수술 않고 디스크 고치는 감압 치료기 환자 70%에 효과"
2006.12.04	중앙	임플란트를 1시간 만에...
2006.12.11	중앙	백내장. 노안 동시에 해결-근거리도 잘 보이는 인공수정체 도입
2006.12.20	중앙	안압, 방사선으로 치료하니
2006.12.20	중앙	입으로 호흡하는 아이 아로마 요법+전기침+한약 성장 속도와 학습능력 회복
2006.12.27	중앙	건선엔 레이저!
2005.01.26	한겨레	청소년들 "잠이 모자라~"
2005.01.26	한겨레	빙판길 어깨 '삐끗' 방치 큰일
2005.02.02	한겨레	'소변 주머니' 대체 치료법 나왔다
2005.02.16	한겨레	미숙아도 엄마 젖으로 키운다-모유강화제 개발
2005.02.16	한겨레	"원인모를 간암 7년째 2배 증가"
2005.03.02	한겨레	허리 비만 위험선 남 36인치, 여 33인치
2005.03.02	한겨레	어린이 10명중 8명 폐니실린도 효과 없어
2005.03.09	한겨레	잠자다 다리 부들부들 '철분'이 부족하시군요
2005.03.09	한겨레	가임기 여성 8% '월경전증후군'
2005.03.16	한겨레	영양불량 노인환자 병원시세 길어진다
2005.03.23	한겨레	중년여성 살빼기 '빨리 걷기' 도움
2005.03.30	한겨레	산만한 아이들 74% 또 다른 정신질환
2005.04.06	한겨레	한국인 '동전모양' 건선 급적급적
2005.04.13	한겨레	담석증 합병증 남성이 심하다
2005.04.13	한겨레	당뇨 합병증 '케톤산증' 감염 등 유발 사망 12%
2005.04.13	한겨레	매주 '소주2병' 대장암 위험 7배 ↑
2005.04.20	한겨레	직장인 85%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필요"
2005.04.20	한겨레	병원 방문한 1-4살 어린이 4명중 1명 '천식'고통

2005.04.20	한겨레	알레르기 질환 일으키는 주범은 집먼지. 진드기. 바퀴벌레. 곰팡이 순
2005.04.27	한겨레	50살부터 10년마다 대장내시경 검사
2005.04.27	한겨레	비만인, 고혈압 위험 정상인의 3배
2005.05.04	한겨레	조기 피부암 '광선각화증'레이저 쏘아 말끔히 치료
2005.05.11	한겨레	"군 사격훈련 난청 유발 가능성"
2005.05.11	한겨레	세라믹 엉덩이 관절 20년 이상 사용 가능
2005.05.18	한겨레	35살 넘은 산모 저체중아 조심
2005.05.25	한겨레	자동 인공수정체 백내장. 노안 동시해결
2005.06.08	한겨레	알코올 중독 증상 유전자 따라 달라
2005.06.15	한겨레	난치성 간질 뇌수술로 완치한다
2005.06.29	한겨레	고지혈증 환자 44%만 치료 목표치 유지
2005.07.06	한겨레	방사선 이용한 '사이버나이프'효과 톡톡
2005.07.13	한겨레	결핵 10명중 1명 결핵 아닌 다른 균 감염
2005.08.03	한겨레	돼지족발이 젓 분비 촉진 실험으로 인증
2005.08.10	한겨레	알레르기 유발 먹거리로 '아토피'잡는다
2005.08.17	한겨레	폐경기 뒤 여성 5명중 1명 불면증
2005.08.24	한겨레	피부노화 막기 "열 받으면 식혀라"
2005.08.31	한겨레	젊은 사람들 100명중 5명 밤에 "샌다"
2005.09.07	한겨레	전립선암 20년 새 '20배'늘어
2005.09.14	한겨레	신생아 500명중 1명 청각 장애
2005.09.21	한겨레	중증 당뇨병환자에 산 사람 췌장이식 혈당 조절 첫 성공
2005.09.21	한겨레	인공관절서 떨어져 나온 금속 주의
2005.09.21	한겨레	부모 소득 높을수록 아이 충치 발생 적다
2005.09.28	한겨레	모니터 볼 때 '거북이 목' 자세가 병 불러
2005.09.28	한겨레	알코올 중독 10명중 6명 직장인
2005.10.05	한겨레	심장질환 여성사망률 높아
2005.10.05	한겨레	주말 응급실 '바쁘다 바빠' 골절환자 23%늘어
2005.10.19	한겨레	당뇨환자 심장수술 지장 없어

2005.10.26 한겨레 미성년 성폭력 2건 중 1건 '아는 사람'
 2005.11.02 한겨레 저체중 출산아 '대사증후군' 빈도 높다
 2005.11.02 한겨레 폐기능 떨어져 혁~혁-중년남성 증가
 2005.11.09 한겨레 뇌전기자극으로 만성두통 완화
 2005.11.16 한겨레 니켈 알레르기 환자 '티백'피해야
 2005.11.23 한겨레 "유방절제와 복원, 함께 하는 게 유리"
 2005.11.23 한겨레 대사증후군, 부부동반 보유 가능성 높아
 2005.11.30 한겨레 흡연, 비만이 디스크 질환 부른다
 2005.11.30 한겨레 고혈압, 관심만큼 생활 속 실천 부족
 2005.12.07 한겨레 서비스업종 종사자 10명중 3명 '우울증'
 2005.12.14 한겨레 알코올 중독, 위장병. 당뇨도 동반
 2005.12.14 한겨레 5살까지는 물화상 조심 6살 이상 불화상
 2005.12.14 한겨레 지나친 잠곡은 소화 장애 일으켜
 2006.01.04 한겨레 아토피 한방치료법 '아토피인'개발
 2006.01.11 한겨레 "여성 뇌혈관질환. 서구형 뇌졸중 증가"
 2006.01.18 한겨레 소음인들이여, 알코올을 경계하라
 2006.01.25 한겨레 자궁경관무력증, 봉합술로 아이 낳을 수 있어
 2006.01.25 한겨레 지나친 운동 전립선비대증 위험 높여
 2006.02.08 한겨레 오줌역류 효과적 치료법 개발
 2006.02.15 한겨레 뇌경색 '우회로 수술'로 재발률 낮춰
 2006.02.22 한겨레 하지정맥류 유전 가능성 높아
 2006.03.08 한겨레 40대 여성, 유방암 주의보 아산병원 수술 환자 중 42%
 2006.03.15 한겨레 콩. 보리. 아몬드로 포트폴리오 짜보세요
 2006.03.15 한겨레 '하지불안증후군' 진단 받으세요
 2006.03.22 한겨레 종아리 땅기면 동맥경화 의심
 2006.03.29 한겨레 고지혈증 치료제 동맥경화증에도 효과
 2006.03.29 한겨레 흡연자 입속 세균 '드글 드글'
 2006.04.19 한겨레 코고는 남편 80% 코골이 때문 부부싸움
 2006.04.26 한겨레 척추도 '월요병' 몸살

2006.04.26 한겨레 '토끼똥' 우리 아이도 변비?
2006.05.03 한겨레 위암 발견 땀 대장암 검사 반드시
2006.05.03 한겨레 젊은 층 우울증 30% 이상은 천당-지옥 조울병
2006.05.10 한겨레 한국인 피부암 인지도 외국인 절반 정도
2006.05.10 한겨레 비만여성 불임시술 성공률 갑절 이상 낮아
2006.05.10 한겨레 춘곤증+식곤증 '고통사고'부른다
2006.05.17 한겨레 어른 4명중 1명 "왓지 불안하다"
2006.05.17 한겨레 전립선암 '로봇 수술' 하면 부작용 줄어든다
2006.05.24 한겨레 손발 썩는 '버거병' 자가 골수 이식이 효과적
2006.06.21 한겨레 척추디스크 진단 조영술로 정확해진다
2006.06.21 한겨레 한국인 6명중 1명 변비
2006.07.12 한겨레 20대 여성 75% "빠가 빠져나가요"
2006.07.26 한겨레 어릴 적 물 귀지 있으면 액취증 생긴다
2006.07.26 한겨레 빨리 먹는 직장인 '신물' 넘어오는 고통
2006.07.26 한겨레 병 키워 오는 탈장 환자들
2006.08.02 한겨레 불임 남성, 시금치 땅콩 먹으면 도움
2006.08.02 한겨레 증상 없이 오는 대장암 50대 이상 남성 '조심'
2006.08.09 한겨레 출산 여성 47% "애 낳고 6개월 내 병 앓다"
2006.08.16 한겨레 여중고생 30% 산부인과 질환 병원엔 4%만
2006.08.16 한겨레 심근경색 환자 줄기세포 치료 효과
2006.08.23 한겨레 '당뇨병외 신장 합병증' 예방물질 규명
2006.08.30 한겨레 '어깨통증' 오십견 보다 힘줄 파열 많다
2006.08.30 한겨레 사우나로 심장병 고친다
2006.08.30 한겨레 비만 아닌 과체중으로 사망률 최고 30%올라
2006.09.06 한겨레 치아 없는 사람 임플란트 시술 1시간이면 OK
2006.09.06 한겨레 '백혈구 적은 신생아' 원인 첫 발견
2006.09.13 한겨레 옷나무 추출물로 항암
2006.09.20 한겨레 붙여두면 흉터가 '싸악'...피복재 국산화 성공
2006.09.27 한겨레 몸에 좋은 인삼 치매에도 '보약'

2006.09.27 한겨레 관절염 수술 3명중 2명 과체중. 비만
2006.10.11 한겨레 초등 고학년 둘 중에 하난 '눈 이상'
2006.11.01 한겨레 알레르기 엄마, 모유 먹여야 아기 안전
2006.11.08 한겨레 '한국형 당뇨' 채식. 과음 때 많아
2006.11.15 한겨레 임신부 간접흡연 피해 심하다
2006.11.27 한겨레 울겨울 어린이 폐렴 특히 조심

Abstract

A study on the reporting trend in the daily media

before or after Hwang Woo-suk Scandal

: focusing on Chosun Daily, Joongang Daily, and Hankyoreh

The Hwang Woo-suk issue began when Gerald P. Schatten of the University of Pittsburg declared on November 13, 2005 that he was severing his ties with Dr. Hwang Woo-suk, whom he had been addressing as "Brother" and had maintained a close collaborative relationship.

The reason for this sudden change of heart, at least superficially, was Dr. Hwang's unethical conduct such as illegal acquisition of egg cells used in the study. After the complications and intriguing twists and turns of events, the case was closed, at least officially, on May 23, 2006 when the prosecutor announced the investigation results of the months-long investigation on the alleged fabrication of the stem cell research.

However, in reality, we can say, the Hwang Woo-suk issue has not reached its closure yet. Actually, it might just become one of those 'never ending stories' with no viable conclusion on the horizon.

This is especially true as the press has learned no lessons from this issue or the role they had played in turning the Hwang Woo-suk issue

into the giant circus it became.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the press had been an utter failure in keeping a close eye on the authority and society.

It had simply resorted to faithfully repeating the claims of Hwang and the government with no screening or verification process.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reporting practices of the press shows no difference from what we witnessed back then, the chance of seeing a clear resolution of the Hwang incident seems very slim at the moment.

The Hwang issue was actually a debacle on the part of the press, a raw revelation of its chronic and deep-seated invalidism. The press could never be free from blame for what happened as it was neither accurate, objective, nor fair in covering the Hwang issue.

The present study attempts an empirical analysis of how the press has changed in its reporting practices since the Hwang Woo-suk scandal.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e sense that it is the first quantitatively to track the changes in media and press practices after the Hwang Woo-suk scandal. To achieve its objective, the three major dailies, namely, Chosun Daily, JoongAng Daily, and Hankyoreh, were selected to represent the conservative, middle-line, and progressive camps, respectively.

The three daily newspapers were analyzed over two one-year periods, spanning from January to December 2005 and from January to December 2006.

Their articles covering scientific research studies and its related events on their health section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four criteria: whether the articles were based on scientific research papers, whether the limitations of the studies were pointed out, whether the claimed results were cross checked by other experts in the relevant field, and whether the source of the research fund was disclosed in a transparent manner.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three newspapers had run a total of 156 articles covering scientific research and studies in 2005, the year prior to the Hwang Woo-suk issue, and a total of 155 articles in 2006.

Of those articles, only 57 (36.54%) and 57 (36.77%) articles were based on scientific research papers in 2005 and 2006, respectively. The number of articles that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the researches was 7 in 2005 and 10 in 2006. Only 17 articles in 2005 and 22 articles in 2006 had their contents cross checked by experts.

In 2005, none of the articles managed to disclose the source of funds used by the researchers, and the figure improved only minimally in 2006 to 3.

Based on these findings, the four hypotheses (after the Hwang Woo-suk issue, more newspaper articles will be based on scientific research papers, point out the limitations of the respective research studies, undergo a cross checking process involving experts, and disclose the source of the research funds in a transparent manner) were

subjected to Chi-Square Test validation using the SAS program.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were no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four hypotheses and they were all rejected.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press has learned no lessons whatsoever from the Hwang Woo-suk issue and that the reporting practices for scientific articles remains unchanged even after the issue.

Inappropriate conduct or issues can occur in any organization. What matters is that corrective actions are taken to rectify the misdeeds and improvement efforts are made. The press has tremendous power in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thus, the greater the side effects of any erroneous reporting.

This is the very reason journalists and reporters should take to heart the fact that articles on unverified claims for health and medicine can harm rather than benefit the wellbeing of the general public. Thus, clear reporting principles must be established to prevent such articles from being released in the first place.

A sober self-reflection of all those working in the journalism circle, including reporters and editors, is ever more called for so as to stop any more precarious walks down the same erroneous path again.

Key words : Hwang Woo-suk, daily newspapers, reporting trend